

■ 일원 가족은 행복 첫걸음

원기 101년 교화연구소 정기 연구발표
가족 교화 활성화 프로그램 연구

일시 원기 101년 10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주관 원불교 교정원 교화연구소

㉠ 차 례 ㉠

회 순

-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 5
오경조 교무

- 출생에서 회갑까지 교화 프로그램 17
안성오 교무

- 가족 교화 활성화를 위한 의식용 리플렛 구성
-천도재·열반기념제·명절 향례를 중심으로 23
김태연 교무

- 고령화 사회와 노인 교화 53
정천경 교무

메 모

㉠ 회 순 ㉠

1. 개 회

2. 입 정

3. 설명기도

4. 영상 시청-‘우리 집은 부처님 학교’

5. 발 표

◆ 발표 1 :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
(오경조 교무/ 원불교 수원교당)

◆ 발표 2 : 출생에서 회갑까지 교화 프로그램
(안성오 교무/ 원불교 김제교당)

◆ 발표 3 : 가족 교화 활성화를 위한 의식용 리플렛 구성
(김태연 교무/ 휴무)

◆ 발표 4 : 고령화 사회와 노인 교화
(정천경 교무/ 원불교 임피교당·보은의 집)

6. 질의응답

7. 감사의 말씀

8. 폐 회

발표 1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

오경조 교무

▷ 원불교 수원교당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

오경조 교무

여는 글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

1. 일상생활 속 신앙·수행

-매일 : 1) 조석심고 2) 감사 명상 3) 법문 사경 4) 식사기도 및 공양의 노래

-주말 : 상시 일기 점검 및 염불

-매월: 1) 월초기도 2) 참회기도

-연초: 1) 행복 복전 나누기 2) 가족 성지 순례

2. 유무념과 함께하는 신앙·수행

3. 생생 '특' 행복 '삶' 신앙·수행(11과목과 함께하는 신앙·수행)

1) 일원상 마주하기(선 명상)

2) 일원상 대화하기(강연 및 회화) 2분 스피치

3) 일원상 생활하기(주의 조행)

여는 글

소태산 대종사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함에는 온 집안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늘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진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종교적 언어와 가치관을 배우고, 수행을 통하여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정에서부터 형성된 종교적 품성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하고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정은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가정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자 또한 작은 교당이며 가장 이상적인 교화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져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연함과 위기의식 속에서 이 안내서는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을 구체적으로 도움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큰 은혜가 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

1. 일상생활 속 신앙·수행

[매일]

1) 조석심고

-목적: 가정에 봉안된 일원상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신앙습관을 길들인다.

-기대 및 효과: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듣는 가운데 신앙체험이 되어 기도 역시 체질화 될 수 있다.

-방법: 아침, 저녁 기본적인 기도문을 일원상 앞에 비치해 두고 누구나 망설임 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온 가족이 함께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가족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이 각각이라 어려움이 따른다.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될 때는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혼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

예) 아침기도문 - 등교 및 출근 전 일원상 앞에 기도하기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은혜 속에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 맑은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일상의 당연하고 소소한 것들로부터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생활 하는 하루를 살겠사오니 늘 지켜주시고 살피 주시옵소서.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지혜와 용기로 희망찬 하루, 은혜로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예) 저녁기도문- 하교 및 퇴근 후 일원상 앞에 기도하기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은혜 속에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무사히 가정에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정신, 밝은 정신으로 주위를 맑히고 밝히는 주인공이었는지 혹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반성하여 봅니다. 다시, 이 기도를 통하여 참회하고 새날을 다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내안의 평화 세상의 평화

2) 감사명상

-목적: 사은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감사생활하는 보은자가 되기 위함이다.

-기대 및 효과: ‘감사명상’은 늘 옆에 있고, 늘 당연하게 있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는 깨달음을 줄 것이다. 깨달음이 있고 감사생활이 된 후에는 보은의 삶으로 이어진다.

-방법: 매일 취침 전 1분 명상 후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 감사노트에 기재한다.

예) 감사노트

오늘의 감사한 일

<p>원기 101년 0월 00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짜증나는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멈춘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3.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쉽게 가르쳐준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3) 법문사경

-목적: 깨달은 성자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지혜를 밝힌다.

-기대 및 효과: 가족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소홀하고, 소원한 경우가 많다. 법문사경은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을 법으로 묶어준다. 법문을 공유하고 법문을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건강한 가정이 된다. 법문 메시지를 주고받고, 법문을 함께 사경하는 일은 이 가정의 축복이고 진급이다. 또, 밝아진 지혜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운전해 갈 수 있다.

-방법: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

먼저 가족의 순번을 정한다.(예: 아빠->엄마->자녀->아빠) 아침 시간에는 각자의 일터로 향하여 개개인이 마음에 드는 법문을 찾아 ‘오늘의 법문’을 문자 메시지로 전한다. 저녁 시간에는 ‘가족사경노트’를 약속한 공간에 두고 하루에 한 자, 한 줄이라도 직접 손으로 쓰는 시간을 갖는다.

아침 -법문 이어 보내기

매일 오전 중에 가족들에게 각자가 선택한 법문을 메시지로 전한다. 가족들이 각각 보낸 법문은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로운 법식이 된다.

저녁 - 법문 이어 쓰기

매일 하루는 경전의 말씀으로 마무리 한다. 법문 이어쓰기는 개인의 사경노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일원상 앞이나 가족들의 공동 공간(식탁, 거실 등)에 '가족사경노트'를 비치에 두고 온가족이 돌아가면서 그날의 법문을 이어 쓴다.

4) 식사기도 및 공양의 노래

-목적: 세상 만물이 사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감사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기대 및 효과: 식탁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간단한 감사기도 후 식사를 하는 일은 식사예절을 갖추게 되고 그 禮는 개인의 인격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방법: ① 가족이 순서를 정하여 돌아가면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다.

② 공동 기도문을 정하여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

③ 성가 95장 '네 가지 크신 은혜' 공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

예) 공동기도문

사은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하게 하시니 그 은혜 한량없나이다. 이 소중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대지 위에, 하늘 아래 바람과 공기와 물, 햇빛, 농부의 수고와 운반의 손길에 감사를 전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이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음식을 먹고 육신의 건강을 챙겨 은혜에 보은하며 살게 하여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마음도 기르고 길러 세상에 유익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주말]

상시일기 점검 및 염불

-목적: 주말 저녁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시일기 점검 및 염불을 한다. 일주일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 마음공부 이야기, 유무념 등 각자가 공부한 바를 점검하고 일념을 모으는 염불로 한주를 마감한다.

-기대 및 효과: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가정이 야외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집에서 TV 시청이나 게임 등으로 황금 같은 주말시간을 허송한다. 이때, 가족이 함께이기보다는 각각 즐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말 야외활동 후이나 TV시청 후에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지낸 일들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공유한다면 서로를 더 자세히 알고 더 가까워지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방법: 가족들의 약속으로 매주 '상시일기 점검 및 염불'시간을 고정한다.

- ① 이 시간은 가족들이 돌아가면 한 달씩 진행한다.
- ② 가족들이 한두 명씩 모여 앉기 시작하면 사회자는 자연스럽게 성가를 시작해서 함께 부른다.
- ③ 개식-입정-설명기도-일원상서원문-법어봉독-상시일기 점검-염불-저녁기도의 노래-폐식

예) 식 순

개식 - 지금부터 주말 가족모임 시작합니다.

입정 - 온전한 마음 모읍니다.

설명기도 -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지난 일주일 바람 잦은 일상에서도 열심히 살다가 우리 가족들 이렇게 건강히 오늘 주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은님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그 배는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이 한 배, 나아가 세상이라는 큰 배를 탄 우리들입니다. 세상 어떤 유혹과 경계에서도 우리 가족들 누구에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주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어 그 믿음이 곧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님

오늘 그 믿음을 다지고 견고히 하고자 우리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 공부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여 일주일을 정리하고, 맞이하는 한 주를 살아갈 지혜를 삼고자 하오니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살려주 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원하옵니다.

일원상서원문 - 다같이

법어봉독 - 사회자가 한 달분의 법어봉독을 정한다.

상시일기 점검 - ① 일주일 동안 해 온 '공동유무념 체크표'를 준비하여

한 사람씩 발표하고 유무념을 실천하면서 느꼈던 감상을 나눈다.

개인의 유무념 조목도 함께 한다.

② 일주일 동안 가장 마음에 남는 경계로 마음공부 한 내용을 회화한다.

염불 - '나무아미타불' 문구에 일념을 모으는 염불을 시작합니다.

저녁기도의 노래 - 저녁기도의 노래 함께 부릅니다.

폐식 - 이상으로 ?월 ?주.. 가족모임 모두 마칩니다.

[매월]

1) 월초기도

-목적: 매 월 1일은 월초기도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새달을 살아갈 힘을 준비한다.

-기대 및 효과: 법신불 일원상 앞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 계획과 다짐을 기도하므로 자력과 타력을 아울러 살아가는 진리를 터득한다.

-방법: 월초(1일)가 평일일 경우 기도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때에는 온라인 기도식을 갖는다. 사회자는(한 달씩 담당) 가족들이 온라인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식순과 함께 기도문을 가족들의 문자 메시지에 전달한다. 메시지를 받은 자리에서 식순을 밝아 기도를 시작한다.

■ 개식-입정-영주 7독-월초기도문-독경(서원문, 청정주 7독)-원하옵니다-폐식

예)월초기도문

무한한 지혜의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 달, 새 기운과 더불어 저희 가족들 이렇게 진리와의 만남에 가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가족들 은혜로운 순간순간을 통해 개인의 소망이 큰 서원으로 자라서, 그 큰 서원으로 '진리가 곧 나요 내가 곧 진리'인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은이시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 속에서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상극의 씨앗을 심기보다 빈 마음으로 상생의 인연을 만들게 하시옵고, 각자의 심신작용을 통해 역력히 드러나는 인과의 진리를 발견하여 비바람 이겨낸 나무가 풍성한 숲을 이루듯 경계를 이겨내고 이겨내는 공부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주 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내 안의 평화가 시작되어 세상의 평화가 이룩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 불의를 잘 가려서 옳은 일은 실행에 옮기는 정의로운 저희들이게 하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세상 속 힘겨운 약자들에게 밝은 빛, 은혜의 빛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달도 몸과 마음으로

진급의 걸음걸음 걷는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모아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립니다.

2) 참회기도

-목적: 매 월 마지막 날(평일이 어렵다면 월말에 가까운 주말) 108배와 함께 참회기도로 한 달을 마무리 하고 새 달을 맞이한다. 이는 죄업이 청정해져서 새 생활을 개척하고, 바른 길을 걷는 초문이 된다.

-기대 및 효과: 아무리 한 때에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 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열린다.

-방법: 참회의 방법은 사참과 이참이 있다.

■ 개식-입정-영주 7독-참회기도문-108배-독경(서원문, 참회계 3독)-범어봉독-성가(142장)

-폐식

예)참회기도문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저희 가족들 건강한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실하며 한 달을 살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참회기도를 통하여 한 달 동안 은혜로웠던 일은 깊이 감사 올리고, 잘못된 일은 깊이 반성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사은이시여

‘너’라는 관념을 놓지 못하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나’라는 상을 놓지 못하여 분별심과 주착심으로 상대방을 대하였음에 참회합니다. ‘우리’라는 허울에 사로잡혀 자만과 오만으로 만난 상대방을 향해 깊이 참회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서는 저희들의 심신 작용의 처리에 따라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되고, 강자도 되고, 약자도 되고 환영도 받고 천대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오니 늘 깨어있는 마음공부로 진급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저희 가족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오니 크신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 안을 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가족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이 참회로 이 세상의 묵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생활을 개척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낙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밝은 빛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모아 원하옵고 108배 올리나니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연초]

1) 행복 복전 나누기

-목적: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 보람 삼을 만한 법문을 나눈다.

-기대 및 효과: 소태산 대종사가 친히 내려준 법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소태산 대종사께 직접 받은 법문을 지킴 삼아 일 년을 은혜롭게 살아간다.

-방법: 복주머니를 가족 숫자만큼 준비하여 그 안에 복전과 함께 다양한 법문을 함께 넣어둔다. 이어, 복주머니를 나눠 가진 후 각자 뽑은 법문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한 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다.

■ 개식-입정-설명기도-심고가-범어봉독-복전 나누기-원하옵시다-폐식

예) 설명기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변하되 변함없는 천지의 조화 속에 저희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가족들은 대종사님을 모시고 일 년을 살아갈 말씀을 받들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주신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실행하는 공부인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원하옵니다.

2) 가족 성지순례

-목적:

-기대 및 효과: 성자들이 나신 곳을 직접 거닐며 성자의 혼을 체 받는 시간으로 가족 모두에게 성지는 더 가깝고 새롭게 다가온다.

-방법: 매년 연초나 휴가기간을 맞아 가족들의 성지순례를 계획한다.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성지를 순례하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된다.

예) 원기 102년 영산성지순례

3. 생생 ‘특’ 행복 ‘삶’ 신앙수행(11과목과 함께하는 신앙수행)

인간생활의 시작은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가정에서 가족들은 서로 관계하고 이해하고 활동하여 사회적인 동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릇이 되는 이 가정을 지키고 살리고 가꿔가야 한다. 가정은 끊임없는 자정활동으로 진급할 수 있는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 이에 원불교 가정은 주말을 이용한 1일 훈련, 1박2일 훈련을 한다.

1) 일원상 마주하기(선 명상)

-목적: 선체험 및 명상체험으로 본래 나를 만나고 고요한 진리 자리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다.

-기대 및 효과: 놓고 비우는 훈련이 되고 보면 요란한 경계 가운데에서도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방법: 가족훈련은 가정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훈련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하는 집보다는 다른 환경을 찾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개식-몸풀기 요가(담당자 정하기)-입정-독경(서원문 3독)-몸풀기 요가-폐식

2) 일원상 대화하기(강연 및 회화) 3분 스피치

-목적: 사리 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여 그 의지를 해석하는 힘을 기른다.

-기대 및 효과: 매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춰 강연을 하고 자유로이 회화가 단련이 되면 교법으로 무장된 사고와 언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

-방법: 월초기도 후 모임을 가지고 강연주제를 정한다(자율선택 및 지정)

■ 개식-입정-강연-회화-성가-폐식

3) 일원상 생활하기(주의 조행)

-목적: 예와 도덕이 무너져 가는 이 시대에 가정에서부터 주의 조행 훈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다운 행실을 하고 예를 갖춘 인격자가 된다.

-기대 및 효과: 마음의 힘과 실행의 힘이 쌓여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된다.

-방법: ① 사은헌배(일원상 헌배)를 통해 몸을 단련하고 겸손, 바른 태도, 공경 등을 몸에 익힌다. 처음에는 4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 혹은 처음부터 40배, 가족의 나이를 더한 수만큼 절하는 방법을 택한다.

② 1일 역할 체인지- 주말을 이용해 하루 동안 가족의 역할을 바꿔서 몸과 마음을 존절히 하는 태도를 배우고 익혀본다. 주로 자녀와 부모사이의 역할을 바꾼다.

발표 2

출생에서 회갑까지 교화 프로그램

안성오 교무
▷ 원불교 김제교당

출생에서 회갑까지 교화 프로그램

안성오 교무

I. 시작하는 말

II. 예전 집레집 가례편

1. 출생
2. 결혼
3. 열반

III. 맺는 말

I. 시작하는 말

백주년 기념 대회가 끝나고 대망의 원불교 2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가족교화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하는 교화연구소의 발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발표까지 하게 되어 많은 부담을 안고 글을 시작한다. 현재 출가 5년차로 교화 경험이 첨단 하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교무님들의 교화 경험담을 듣고 그것을 정리해보는 방향으로 작성하려 하였다. 거기에 나름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요즘 흔히 쓰는 단어 중 3포세대, 5포, 7포, N포 세대라는 단어가 있다.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20~30대 청년층을 이야기한다. 3가지만 포기하는 것에 더해 인간관계, 내 집, 희망, 꿈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교화연구소의 발표회는 단순히 교화(교도수 향상)를 잘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요즘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종파를 떠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러한 국가와,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화를 잘하기 위해 목표와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구의 감소, 종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공통적인 현상과 원불교 의식의 어색함. 현대화에 뒤쳐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은 고스란히 종교인 수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교화연구소는 생애 주기별 교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교화의 모습을 전해주려 했었고, 이번엔 가정을 중심으로 교화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II. 예전 집례집 (가례편)

출생

서두에 적었듯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많은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며 축하 받을 일이다. 그러한 의미 있는 일에 원불교적인 방법으로 축하해 준다면 좋은 교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집례집에 출생과 관련해 명명식, 출생 7주기원식이 있다.

출생과 관련된 명명식, 기원식을 진행해본 교무님들은 많지 않았다. 진행해본 교무님들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요즘 교당에서 출생과 관련해서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여기서 근무하는 지역보다 교무님별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향에 따라 하고 안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교도님들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열반의 일을 당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교무님의 안내와 권선이 없다면 안하고 지나치기 쉽다.

교무님들 역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교도님께 적극 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의식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권선하는 교육과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명명식

- 교도의 출생소식을 듣게 되면, 적극적으로 축하해주고 명명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 산모의 경우 산후 조리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우니, 남편이나 부모님과 함께 명명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명은 미리 이야기 하여 원하는 이름이나 선호하는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출생 후 15일전까지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출생 신고시 법명을 호적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까지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출생 7주 기원식

요즘은 7주보다 100일 때 기도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다. 오히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는 점이 교도입장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이때 선물로는 사진을 찍어 액자나 앨범으로 줄 수 있으면 후에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교화단이나 인연되는 분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천주교의 유아 세례식처럼 대부님 지정을 은부 은자녀 결의로 시행해도 좋을 것 같다.

(3) 생일기도

출생 후 생일기도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해주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권선하고 안내한다.

원티스에 생일 정보가 나오니 미리 연락하도록 한다.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선물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서 관심을 놓지 않는 불공이 필요하다.

(4) 성년식

성년식은 주로 교구별로 교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사회적으로 비교도들에게도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다.

명사초청,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마하고, 제공해주는 역할

2. 결혼

요즘엔 교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주례가 없는 결혼도 유행을 한다. 또 사회적으로 작은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작은 결혼식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교당도 있다. 다문화 결혼식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교무가 주례가 아니어도 결혼식장에 적극 참석해서 축하해 주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 부부의 도와 관련 법문을 인용해서 인도해준다.

3. 열반

- 열반 전부터 열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주변인연에 마음의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한다.

과거와 달리 매장보다는 화장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집에 나온 입장식 전에 화장장에서 올리는 의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입관식 전 염하는 시간에 교무가 참석해서 가족들과 함께해주는 것과 발인후 장지에 갈 때까지 법복을 착용하고 옆에서 목탁으로 염불과 독경으로 인도를 해주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당에 안치식 후에 천도재의 필요성과 의미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천도에 관련된 유인물이 제작되어 함께 배부가 되면 좋을 것이다.

발인식과 종재 때만 고사가 있으나, 식구가 많다든지 특성에 따라 매 재 때마다 고사를 올려 드리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 열반 기념 제사 때에도 자연스럽게 고사를 올리는 문화가 이어지게 된다.

Ⅲ. 맺는말

출생, 결혼, 열반은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렇기에 준비를 해야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닥치면 쉽게 취사하기가 어려운 일들이다. 그러할 때 신앙의 힘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앞으로 교역자의 수는 줄어들고 수많은 의식에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질 것이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것은 재가교도의 활용이다. 예를 들어 의식전담 분과에서 교도님들의 상장시에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천주교나 기독교의 의식단은 복장부터 장엄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식 전담을 통해서 개인으로도 교법의 생활화가 될 수 있으며,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가례편의 의식 행사에서 교무님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예전집에 식순과 설명이 나왔기에 그것을 참고하면 되지만 예전집에 나오지 않는 전과 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교단적으로 많은 준비와 연구 모임이 생겨야 될 것이다.

발표 3

가족 교화 활성화를 위한 의식용 리플렛 구성

김태연 교무

▷ 휴무

가족교회 활성화를 위한 의식용 리플렛 구성

-천도재, 열반기념제, 명절 향례를 중심으로

김태연 교무

- I. 들어가는 말
- II. 가족교회에서 의식의 중요성
- III. 천도재를 위한 리플렛
- IV. 열반기념제를 위한 리플렛
- V. 설(추석) 명절 향례를 위한 리플렛
- V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주기를 가진다.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순환 이치를 따르게 된다. 누구나 잘 살기를 원했고, 누구나 평등하기를 원했고, 누구나 잘 대접받고 잘 살다가, 마지막 떠나는 길도 잘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태어날 때에는 오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 없이 사고나 병 등으로 먼저 가기도 하고, 100세가 넘을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 가기도 한다.

원불교 100년을 지내고, 원불교 2세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역시 교화이다. 어떻게 하면 교화를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당에, 일원상진리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원불교 2세기를 책임질 젊은 교도들을 모아볼 것인가가 재가출가 전 교도들의 관심이고 과제이지 않을 수 없다.

원기 100년 교화훈련부에서는 교화에 대한 정책으로 4가지 주제 곧 “입교, 순교, 가족교화, 교화단교화”를 제시했다. 이 4가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벼리가 될 만한 것이 가족교화라고 본다. 교도 개개인이 자신의 가족부터 교화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입교가 되고, 순교를 하며, 또 교화단교화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족교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족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상장(喪葬)의

식이다.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나라가 고향으로 향하는 풍토를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명절 때마다 진행되는 제사가 곧 가족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에 천도재, 제사 등의 상장의식을 원불교 신정예법으로 잘 진행된다면 가족교화를 활성화시키게 되어, 결국 원불교 2세기 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족교화 활성화를 위한 상장의식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 천도재와 열반기념제 안내를 위한 리플렛용 텍스트를 정리하고, 간소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예(禮)의 정신은 살리면서 조상을 잘 섬길 수 있는 원불교 향례를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식순, 기념문 및 축원문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경과 겸양의 정신으로 조상을 섬기고, 가족 간의 화합하며, 원불교 신앙으로 온 가족이 일원의 명가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II. 가족교화에서 의식의 중요성

가정은 한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가정을 이루면 자연히 자녀가 출생되고, 그 자녀가 자라서 또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는 출생, 성년, 혼인, 회갑, 상장(喪葬), 재(齋), 제사 등의 일이 있게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의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통틀어 가례(家禮)라고 한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근본이 되며, 세계의 희망이기 때문에 가정의례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사회의 예, 국가의 예, 세상의 예가 저절로 바르게 되어진다.

대종사께서는 큰 깨달음을 얻은 뒤 제자들을 모아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허례폐지·미신타파·금주금연·근검저축·공동출역 등을 통해 예법 혁신 운동을 전개했다. 그것은 과거부터 사용되어 오던 유가의 예법이 너무나 형식화되고 복잡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고 경제적 낭비도 심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형식과 허례에 치우친 사회 일반의 예법을 개혁하여 출생의 예·성인의 예·혼인의 예·상장의 예·제사의 예와 4기념 예법 등 ‘신정의례’를 발표하였는데, 아래의 그림¹⁾이 원불교 가정의례의 기본 바탕이다.

1) 원티스(www.won.or.kr) > 원불교소개 > 원불교 가정의례



교당에서 교도개인카드를 살피다 보면 가끔 전혀 모르는 교도들이 있다. 물론 그 교도는 열반했거나, 쉬고 있는 교도이다. 알만한 주무들에게 물어보면 가끔 알기도 하고, 전혀 모르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상의 교도가 범호인이거나 범사인 경우가 있다. 교무도 모르고, 교도도 모르는 그 교도는 과연 누구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교도가 일원의 명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인은 범호인에 범사까지 되었지만, 열반 후에 뒤를 이어줄 가족들이 없어서 결국 초상부터 제사에 이르기까지는 원불교 의식으로도 치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자녀에 의해 목사님으로부터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받게 되는 일까지도 있다.

반면에 1명이라도 가족교화를 해 놓은 교도는 본인이 범호도 못 받았을지라도 교당에 다니는 자녀에 의해 천도의식도 받게 되고, 열반 당시에는 사업성적이 부족해서 꽃다운 이름을 범보에 올리지 못했지만, 후일 자녀들이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신앙심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열심히 교당에 다니면서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금을 내준 공덕으로 그 교도는 거진 출진 5좌위에 올라, 대재 때마다 향례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또 원불교와 특별한 인연의 끈이 없었지만, 어머님께서 원불교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다가 열반을 하셨는데, 교무님의 권유로 어머니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면서 전 가족이 원불교에 귀의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상장의식은 인연이 없던 가족들에게 정법에 대한 인연의 끈이

되어주기도 한 것이다.

가족교회와 상장 의식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가족교회가 상장 의식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거꾸로 원불교 상장 의식으로 말미암아 교당에 인연이 없던 가족들이 원불교와 인연이 되어 정법을 배우고 자신들의 앞길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상장 의식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고 행하면 참석한 개개인에게 빛이 되고, 가족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며, 나아가 원불교 교화 성장에도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Ⅲ. 천도재를 위한 리플렛

이 장에서는 7·7 헌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천도재를 처음 접하고,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 때마다 제공할 수 있는 리플렛²⁾을 만들려고 한다. 원기 87년(2003년)에 교화연구소에서는 『천도, 죽음을 안내하는 길』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천도재에서 독경을 마친 후에 각 재마다 할 수 있는 설교안을 구성한 것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재에 참석한 사람들이 직접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먼저 천도에 대한 것을 천도품 5장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종사 천도를 위한 법문으로 "열반 전후에 후생 길 인도하는 법설"을 내리시니 이러하니라.

「아무야 정신을 차려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이 세상에서 네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 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 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 고타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命之長短)을 다 네가 짓고 짓나니라. 아무야 일체 만사를 다 네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느냐.

2) 원티스> 출가교역자광장> 원불교교회정보센터> 의식행사> 게시판 122번을 보면 김광은 교무가 7재가 진행되는 동안 나눠줄 수 있는 회보를 제작하여 올려놓았다. 이 자료도 훌륭하지만, 재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하고, 말로 하는 설명이 어려운 경향이 있어 다시 만들게 되었다.

아무야 또 들으라.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네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구족한 성품이니라.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에 달과 같이 참 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마는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로 한 이 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적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위이화(無爲而化)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필지언정 생사는 아니니라. 아무야 듣고 듣느냐, 이제 이 성품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았느냐.

또 들으라. 이제 네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너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데로 좇아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勝)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 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無量劫)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니라. 듣고 듣느냐.

아무야 또 들으라. 네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라. 만일 호리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大業)을 성취하고 무량한 행복을 얻으리요. 아무야 듣고 들었느냐.

천도품 5장은 “① 대자연의 천업은 선악간 지은 바대로 받는다. ② 생사의 이치와 성품 자리는 다 같은 것이다. 나고 죽는 것은 변화는 필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무이이화 자동적이다. ③ 새 몸을 받는 이치는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그 육신을 받는다. ④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고, 애착과 탐착을 여의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인과, 생사, 몸 받는 이치, 몸 받는 원리 네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천도재 리플렛의 주제를 “초재는 천도재는 무엇인가? 2재는 영가가 있는가? 3재는 착심은 어떤 것인가? 4재는 천도재의 공덕은 무엇인가? 5재는 나고 죽는 것은 변화는 필

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6재는 천도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종재는 생사 거래의 세 가지 근기”로 구성해보았다.

천도재는 영가와 재주 그리고 법사가 함께 정성을 모아서 해야 할 의식이라고 볼 때 재주의 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재주와 천도 의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바탕으로 한 리플렛을 구성해보았다.

천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의 전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는 있으나, 이론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될 리플렛은 천도에 대한 예화로 그 뜻을 풀어가려고 한다. 예화가 주는 단점은 반복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비교도들에게는 오히려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을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비교도에게 천도재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천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원불교전서와 신입교도 책자, 원불교 대사전 등에서 인용했고, 예화는 원티스 자유게시판에 현산 박남주 교무님이 올린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리플렛 1재> 천도재는 무엇인가??

1. 열반이란 무엇인가?

열반의 원래 뜻은 진리를 깨달아 모든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뜻에서 열반이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흩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업력을 따라 끝없이 윤회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물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나, 이생의 삶은 끝난다 할지라도 그 삶은 다시 내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바에 따라 육도(천도·인도·수라·축생·아귀·지옥)로 윤회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비유하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깬다 하는 것과도 같으니, 사람에 따라 조금 빠르고 늦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낯고 죽는 것이 돌이 아니므로,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로 안다.”하셨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8장>

생사는 변화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때는 몇 천 년이나 살 것 같지만 길어야 100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잠을 자다가도 숨 한 번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저 사는 데에만 급하다 보니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나 치명적인 병으로 죽음이 가깝게 다가오면 당황하고 공포 속에 불안해합니다. 생사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못 돌아 올 길을 떠난다면 당연히 슬프고 두려울 것이나, 육신은 비록 죽었다 살았다하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또 다시 새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이 변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2. 천도란 무엇인가?

천도는 옮기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도록 옮겨주고, 욕심과 집착의 세계에서 고해생활을 하며 살던 사람에게 즐거운 낙원생활을 하도록 바꾸어주며, 어리석은 중생심으로 옮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진리에 눈을 떠서 깨달음의 생활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후에 영혼을 위하여 불을 밝혀주는 천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살아생전에 자기 스스로 천도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천도재는 왜 지내야 하나?

천도재는 법신불 사은의 위력으로 열반인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다시 소생하듯 정신 기운이 깨어나는데, 이렇게 일곱 번을 거듭하다가 49일 만에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천도재를 통해서 영가[영혼의 높임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갈 길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4. 천도재에 참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천도재에 참석하는 것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지만 살아서 자신을 천도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내가 자력이 있을 때 법문을 많이 듣고, 신심을 일으켜 보시를 하고, 수행에 힘을 써야 자신을 스스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영가의 천도를 발원해 주니 고인과 인연이 좋아지고, 자신이 열반에 들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축원을 해주게 되므로 천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회상 만난 기쁨 : 신입교도 훈련교재』에서)

대종사께서 평소 자주 사용하셨던 예화로 범산 이공전 등 대종사 당대 제자들의 증언이다.

옛날 이진사라는 사람은 세속락을 누리며 살던 유학자로 불교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봄 날 화전놀이를 다녀오다가 마침 비가 와 어느 절 문에 의지해 비를 피하게 되었다. 그때 절 안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하고 경 읽는 소리가 나는 지라, “체, 대방광불화엄경이 다 뭐야.”하고 빈정거렸다.

비가 그친 뒤에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던 이진사는 머슴들의 벼락 치는 소리에 까무러쳐버렸다. 갑작스런 일에 온 집안 식구들은 울고 야단이 났다. 이진사는 까무러친 채 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무사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 한참을 가다보니 신선 두 명이 바둑을 두고 있고, 한 신선은 옆에서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진사는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나도 당장 저런 도포를 입고 바둑이나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세 사람 가운데 흰 도포를 입은 신선이 옷을 벗어주며 “내 대신 여기서 바둑을 두겠느냐.”고 하였다.

이진사가 그 옷을 받아서 막 걸치려고 하는데 별안간 공중에서 “대방광불화엄경 한 번만 외운 사람도 축생보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는 왜 축생의 가죽을 둘러쓰려고 하느냐?”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진사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도포를 입으려다 멈추었다.

다시 한참을 걷다보니 예쁜 기생들이 노래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진사는 ‘나도 저기에서 기생들과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기생들이 와서 “같이 놀자”고 하는지라 막 그곳으로 가려는데, 또 공중에서 “이진사야! 대방광불 화엄경 한 번만 외운 사람도 축생보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는 왜 축생의 굴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깨어보니 집안 식구들이 모두 이진사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이진사는 머슴을 시켜 꿈에 보았던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라 하였다. 강아지 세 마리가 금방 태어났는데 그 중 흰 강아지는 죽어 있었고, 집 뒤에는 개구리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

한다. 강아지 세 마리는 신선이고, 개구리들은 기생들이었던 것이다.

이진사는 그 길로 출가를 단행하여 입산수도를 하였다. 부인과 자녀들이 물어 물어 찾아와도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 만나주지 않았다. 그가 열심히 수도하여 깨닫고 보니 과거에 자기 가 까무러쳐 제일 먼저 만난 무사들은 벌떼들이었고, 예쁜 기생들은 개구리요, 바둑 두는 신선들은 강아지였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이진사는 부안 줄포에 살았던 유학자였고, 절 문에서 비를 피하며 “대방광불화엄경”하고 경 읽는 소리를 들은 곳은 내소사라 한다. 또 이진사가 출가수도한 곳은 내변산으로, 지금도 이진사가 수도하던 골짜기를 도학골이라 부르고 있다. 도학골은 원불교 변산성지 봉래정사 맞은편 골짜기를 말한다.

(원티스(www.won.or.kr)> 출가교역자광장> 자유게시판> 박남주 교무의 글에서)

<리플렛 2재> 영가가 있는가?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있습니다. 육신의 기능이 다하여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깃들여있던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 영혼은 다시 허공에 있다가 각자의 지은 바와 인연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 때까지 몸이 없이 허공을 다니는 영혼을 일러서 영가라고 합니다. 영가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혼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정신 기운이 맑은 사람은 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살펴봅니다.

원기 81년(1997년) 1월 19일에 군산 월명교당의 안타원 이대안 교도의 딸 안재신 교도가 어머니의 열반을 맞아 재를 지내는데 그의 남편인 최광덕 교도가 경험한 일이다.

초재 때의 일이었다.

가족과 교무는 물론이지만 교도님들과 함께 재를 지내고 있는데, 재의 식순 가운데 독경순에 일원상서원문이 막 시작되니까 돌아가신 안타원 이대안 영가가 최교수의 눈에 들어왔다. 그 때의 모습은 한복 차림이었는데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 교수가 말했다. “장모님,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사위의 말에 장모가 대답했다. “12시에 교당에서 모임이 있는데 조금 늦었어. 빨리 가야 한다네.”

재를 지내는 월명교당은 옛날 가정집으로 교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동안 교무와 교도들은 교당의 신축을 위한 계모임을 매월 한 번 가져왔었다. 그런데 초재를 지내는 그 날이 재가 없었다면 12시에 모임을 갖는 날이었다. 그리고 11시에 재를 지내기 시작하여 그

시간이 바로 12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다. 초재에서는 이런 정도였다.

초재가 있고 2~3일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최 교수는 문득 장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장모를 만나려면 나의 영혼을 허공에 날려야겠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 정말 허공에서 장모를 만났다.

그래서 최 교수가 장모에게 말했다. “웬일이세요? 돌아가셨는데 왜 여기 계세요?”

사위가 이렇게 말하자 장모가 말했다.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긴 왜 죽어.”

최교수는 장모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자 다시 말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장모님이 묻혀 계시는 곳에 가 봐요.”

그래서 최 교수는 장모를 안내하여 장모님이 묻힌 장소를 지정하니깐 장모가 다시 말했다.

“정말로 죽었는지 내가 들어가 봐야지.”

묘 속을 들어갔다가 나온 장모는 말했다. “정말 죽었네. 몸에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들어가 지지 않아. 어서 집으로 가 보아야겠어.”

둘이서 군산 집에 갔다. 그리고 최 교수는 장모에게 다시 말했다. “정말로 장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빨리 장모님의 갈 길을 가셔야 해요. 부모 될 인연을 빨리 찾으세요.”

그 때 장모님은 말했다. “여기는 몸 받을 곳이 없어.”

이렇게 하고는 최 교수가 깨어났는데 몸이 몹시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다음은 2재 때의 일이다.

재가 시작되니까 안타원 이대안 교도가 법호를 받을 때 입었던 법복을 차려 입고 아주 환한 얼굴로 법신불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의 순서를 따라 절하고 독경도 하는 것이었다. 재가 끝나자 가족들이 참석자들에게 음식 공양을 위해 음식을 차리니까 영가는 교당 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음식이 다 차려지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떡을 먹으라며 권하다가 교무님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때 교무님은 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떡을 먹지 않고 있자 몇 차례를 권하는 것이 사위인 최 교수의 눈에 보였다. 그런데 교무에게 권해도 드시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 하니깐 최교수의 눈에 장모님이 너무 안타깝게 보였다. 그래서 최교수가 보다 못해 교무님께 떡을 드시라고 하여 교무가 이야기를 그치고 떡을 드시자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 교수의 부인인 안재신 교도가 울고 있는 것을 보더니 옆에서 ‘울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큰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가 기독교인인데 상복을 입지 않다가 그 날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상복을 입고 있으니깐 셋째한테 가서서 등을 어루만지며 '고맙다 고마워'라

고 말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었다. 최 교수가 음식 공양까지 모두 마치고 나오면서 불단을 보니 장모님이 그 불단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3재 때의 일이다. 3재 때는 장모가 파란 우주 공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것만 보였다. 4재는 나타나지 않았고, 5재 때의 일이다.

재를 막 시작하니까 바로 나타나셨는데 '허락 받고 나왔으니 바로 가야 한다.'고 바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손에 무슨 증명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종사님과 정산종사 두 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6재 때의 일이다.

그 때는 축원문을 읽을 때 왔는데 몸에서 광채가 나고, 축원문이 끝난 뒤 절만 받고 가는 것이었다.

종재 때의 일이다.

그 때는 안타원 이대안 영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연꽃이 보이고 그 연꽃에 일원상 같은 구슬이 마치 이슬방울이 뭉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아주 좋은 기운을 느꼈는데 매우 맑고 환한 기운이었고, 특히 큰 딸과 둘째 사위가 그 기운을 아주 강하게 느꼈다.

그런데 안타원 이대안 교도가 보인 것은 사위인 최교수에게만은 아니었다. 최교수의 아들인 남웅이라는 대학생이 있는데 꿈에 외할머니가 초대를 하여 가족 모두가 외할머니의 집에 갔는데 외할머니의 집이 광채가 나고 상아로 된 궁전과 같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집안을 구경시켜 주는데 병풍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집안의 다른 것도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집안에 금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 즉 안재신 교도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아들이 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2~3일 지나서 그 여동생이 꿈에 어머니를 만났다. 그 때 어머니는 기도를 하다가 등을 긁어달라 하는데 평소 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자국이 있었고 그것은 평소의 그대로였다.

둘째 딸이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좋은 곳에서 산다며?”

“좋은 곳은 무슨? 심심해.”

“그러면 아빠 오시라고 할까?”

“아니다. 아빠에 대한 착은 떼었다. 처음에는 죽은 줄 몰랐는데 이젠 다 아니까 괜찮아.”

“엄마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 신혼부부를 따라서 가는 거야.”

“누군데?”

딸이 누구냐고 묻자 안타원 이대안 교도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리고 딸은 꿈을 꾀다.

백일이 되어 백재를 지낼 때의 일이다.

사위인 최 교수는 학교의 일 때문에 재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좌선하는 것으로 마음을 합하였다. 그런데 안타원의 큰 딸인 아내가 100일간 정성스럽게 아침저녁으로 독경과 축원을 하느라 어머니의 사진을 모셨는데 그 사진에 겹쳐져 한 예쁜 사내아이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후 안타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원티스(www.won.or.kr)> 출가교역자광장> 자유게시판> 박남주 교무의 글에서)

<리플렛 3재> 착심은 어떤 것인가?

「그대들은 염라국(閻羅國)과 명부사자(冥府使者)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안이며

명부 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보통 사람은 이생에 얽힌 권속의 정애(情愛)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울안에 떨어져서

1)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2) 혹은 그 집의 가축도 되며

3) 혹은 그 집안에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불조사가 다 착 없이 가며, 착 없이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리하여 능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천도품 18장)

천도를 위해 영가가 해야 할 3가지 일은 착심을 놓고, 청정한 일심을 챙기며, 성불제중의 큰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착심(着心)이라는 것이 마음이 어딘가에 매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사랑하는 마음[애착(愛着)], 욕심내는 마음[탐착(貪着)], 원망하는 마음[원착(怨着)]에 집착이 됩니다. 어딘가에 매인 마음을 놓아야 영가도 제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靈識)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4장)

착심으로 대맹이가 된 이야기

서울 원불교 ○○교당 교도는 교도가 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되었다. 모든 중도금과 잔금을 마치고 이사를 했다. 그런데 벽장문을 열자,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큰 대맹이(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겁을 하고 바로 그 대맹이를 몰아내려고 하자,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몰아내면 다시 들어오고, 또 다시 몰아내면 또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교도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집을 소개해준 복덕방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원래 그 집주인은 춘향골 남원이고향인데 바느질이 훌륭하였다. 남원은 음식과 옷맵시를 내는 바느질이 유명하다. 전 주인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청상과부였다고 한다. 어렵게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돈을 모아 그 집을 샀는데 집을 사놓고 살 만하니까, 그만 갑자기 병이 나서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친척이 이 집을 내놓아 팔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곡절이 있는 집임을 알고, 이 교도님이 직감적으로 대맹이와 이 집주인과 관련이 있음을 느끼고는 그냥 뱀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대맹이를 죽이지 않는 것도 무슨 인연인가 싶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의 천도를 위해 점쟁이를 불러 푸닥거리를 했다. 그런데도 대맹이는 그대로 앉아 꼼짝하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었다. 할 수 없이 기독교 목사님과 집사. 권사들이 기도를 하고, 스님들을 불러 독경도 했다. 그런데도 역시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집을 팔려고 하면서, 어디서 들으니까 원불교에서 천도재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바로 이 교도는 교당을 찾아가 교무에게 전후 사정을 말씀드린 뒤 천도재를 정성스럽게 지내게 되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구렁이가 그만 또아리를 풀고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천도재를 지낸 집주인은 원불교 교도가 되었고 얼마 후에 태기가 있어서 딸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큰 소동이 나고 말았다. 갓난아기가 사람 모습이면서도 대맹이 모습이 남아 있으며 아기가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었다. 산모는 기겁을 하여 병실 밖으로 나와서 교무님을 다급히 불렀다. 교무님은 상황을 파악한 뒤에 교도님에게 타일렀다,

"저 아기를 상생의 인연으로 돌려서 맞이해야 합니다. 만일에 악연이나 상극으로 헤어진다면 더 무서운 불행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님은 마지못해 젖을 물리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산모나 교무님과 인근 교도들이 합동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독경을 정성스럽게 해주었다. 그러자 그 아기가 점점 사람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 아기가 커서 원불교 학생회, 청년회를 잘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남자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극구 말리다가 못해 병이 나서 병원하게 되었다,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원불교에서 사람 만들어 주었는데 어떻게 기독교 총각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느냐" 하고 극구 말리다 못해 병이 나 버린 것이다,

그러자 서울 교도님이 영계가 밝으신 길타원 임윤길씨에게 같이 문병을 가자고 해서 길타원님은 그 병원을 다녀오셨다. 그 뒤 "교무님도 남원 출신이지요?" 하며 저(헌산 박남주 교무)에게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벽장 속에 있는 대맹이가 천도를 받아 이 집 딸로 태어난 것이며, 전생에 업이 남아서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대맹이 모습이 약간 남아있었다는 것이었다.

길타원님이 말하기를, "그래서 착심이란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때 정법을 만났고, 교무님을 잘 만나 완전한 사람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어서 "갓난아기 때 독경을 하면 거의 알아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원티스(www.won.or.kr)> 출가교역자광장> 자유게시판> 박남주 교무의 글에서)

<리플렛 4재> 천도재의 공덕은 무엇인가??

박제봉(朴濟奉) 선진님은 목포가 고향으로 일산 이재철 선진님의 집안 친지이다. 길룡리를 오고 가면서 대종사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던 중 기독교 집사직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 12가지를 언론에 밝히시고 대종사 문하에 입문하셨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제일 부정하는 제사와 천도재를 전담하는 총부 예감이 되었다.

박제봉 선진님은 평소 의심되는 바가 있어서 대종사님께 질문을 하였다.

“칠·칠 천도재(薦度齋)나 열반 기념의 재식을 올리는 것이 그 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나이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나니, 사람이 땅에 곡식을 심고 비료를 주어 보아라. …(중략)… 무정한 땅과 곡식도 그러한 감응이 있거늘 하물며 최령한 사람이 어찌 정성에 감응이 없으리요.”

모든 사람이 돌아간 영을 위하여 (이렇게 정성을 들여 보아라)

1. 천도재 공을 들이는 방법

- (1) 일심으로 심고를 올리고 축원도 드리며
- (2) 헌공도 하고
- (3) 선지식의 설법도 하여 드려 보아라.

2. 그 천도재 및 기념제사 공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천도재에 공을 들이면 그 공덕은 아래와 같다고 밝혀 주셨다.)

- (1)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여, 바로 천도를 받을 수도 있고,
 - (2) 설사 악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차 진급이 되는 수도 있으며,
 - (3) 또는 전생에 많은 빛을 지고 갔을지라도 헌공금(獻貢金)을 잘 활용하여 영위의 이름으로 공중 사업을 하여 주면 그 빛을 벗어 버리기도 하고
 - (4) 빛이 없는 사람은 무형한 가운데 복이 쌓이기도 하나니라.
- 그 감응되는 이치를 다시 말하자면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 하리라.”

(천도품 29장)

경북 금릉군 옴팍 마을에 김갑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편모솔하에서 5남매가 살다가 여자들은 다 결혼을 하고 남동생 하나와 머슴과 두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1904년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비통한 가운데 장사를 잘 치러드렸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그 집 암캐가 새끼를 배더니 강아지 네 마리를 낳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유독 한 마리가 복실복실 잘 생겨 집안사람은 물론 동네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는데, 하루는 갑용의 친구가 와서 “그 놈 참 잘 생겼다. 귀를 세워 사냥개로 팔면 돈을 많이 받을 텐데!” 하였다.

그에 갑용은 귀가 솔깃하여 귀를 찢어 세우고자 그를 시켜 귀를 찢려 하니 강아지가 킁 킁 거리더니 갑자기 멀리 도망쳐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성사를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날 밤 갑용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꾸짖기를,

“이 놈아 그렇게도 눈이 없느냐? 네가 귀를 찢려하던 강아지가 바로 네 어미다. 내가 너희 집 강아지로 태어난 것은, 너는 그대로 가난하지 않게 밥을 먹고 살지만 네 여동생들이 남편을 잘 만나지 못해 가난하므로 너 몰래 쌀과 옷감을 빼내 주었더니 이것이 너에게 큰 빛을 지게 되어 너희 집 도둑을 지키는 개로 태어났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귀를 찢려 하느냐?” 하였다.

소스라쳐 깬 갑용은 이튿날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저도 그와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너의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를 찢려하니 부

디 네가 말려 그러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갑용 내외는 그 강아지를 특별히 대우하기로 하고 쌀밥을 지어 고깃국에 말아서 마루위에 올려놓고 ‘오여! 오여!’하고 강아지를 불렀더니 강아지가 멀거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기만 하고 얼른 나와서 먹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는데 또 그날 밤 꿈에 나타나, “네 이놈, 내가 네의 어미라고 떡 먹듯이 일렀는데, 오여오여가 무엇이나? 너는 이 어미가 강아지로만 보인단 말이나? 이놈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너의 집에 큰 풍파를 일어나게 할 것이니 정신차려라.”하고 사라졌다.

갑용은 꿈이지만 너무도 황송하여 이튿날에는 밥과 고기를 해놓고 강아지더러, “어머님! 어머님! 어서 노여움을 푸시고 잡수세요. 소자가 잘 몰라서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니 그 때서야 꼬리치고 와서 잘 먹고 재롱을 피웠다.

그 후 3일째 되는 날 또 갑용이 꿈을 꾸니 여전히 어머니가 나타나, “기특하다. 과연 네가 나의 아들이다. 네가 이 어미 말을 명심하고 효성을 다하니, 고맙다. 그런데 이제 너에게 몇 가지 부탁할 말이 있으니 꼭 들어다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부선 철도가 생긴 지 몇 해 되어도 일에 골몰하여 한 번도 타보지 못해 한이 되니 네가 나를 데리고 가서 기차를 한번 태워줄 것이고 또 하나는 나와 같이 살던 다른 노파들은 모두 합천 해인사를 구경 가서 팔만대장경을 친견하고 왔는데 나는 그 때 너의 아버지가 반대하여 가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니 해인사를 구경시켜 줄 것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49재를 지내주어야만 모든 죄를 사하고 극락세계로 간다는데 나는 49재를 지내주지 않아서 너희 집에 개가 된 듯 하니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49재는 못 지내더라도 소상(小祥, 1주기)은 아직 지나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날 밤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절에 가서 재를 지내주면 좋겠다.” 하였다.

갑용은 꿈이 하도 역력하여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튿날 강아지를 데리고 김천역으로 나가 영동까지 차표를 샀더니 역무원이 열차에는 개를 데리고 탈 수 없으니 화물차를 이용하라고 힐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기차가 와 강아지가 객차 안으로 날쌔게 뛰어 올라가더니 주위를 살피고 꺾충 뛰어내려 갑용은 역무원에게 사과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 뒤 갑용은 새 옷을 입고 방갓을 쓰고 강아지를 데리고 해인사를 가니 강아지가 산천풍경을 살피며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위 도량을 구경하고 장경각을 참배하려 하니 그 곳을 지키고 있던 스님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도 짐승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갑용이 거북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장경각 문이 훌쩍 열리자 강아지가 날쌔게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장경판을 모조리 구경하고 나온다. 그래서 갑용은 장경판도 다 구경하지 못하고 나왔다.

그때 장경각 옆에 섰던 정홍원이란 스님이 “여보시오, 당신은 상주인 것 같은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체통이 서지 않거늘 짐승을 데리고 남의 신성한 장경각에 들어갔다 나오니 무슨 짓이요.” 하고 꾸짖었다. 할 수 없이 갑용은 그동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돈 백 냥을 놓고, “내일이 저의 어머니 소상날이오니, 이 돈으로 재를 모시어 어머니를 천도하여 주십시오.”하니 도리어 그의 효성을 칭찬하고 여러 스님들과 함께 재를 잘 지내 주었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 그날 밤 절 마루 밑에서 자다가 그대로 죽었는데 갑용과 다른 스님들 꿈에 나타나 치하하며, “나는 아들과 여러 스님들 덕택으로 천상락을 받아가니, 버리고 간 나의 몸이나 잘 화장하여 주십시오.”하였다 그리하여 그 시체를 죽은 스님들처럼 잘 모셔 화장하였다고 한다.

(원티스(www.won.or.kr)> 출가교역자광장> 자유게시판> 박남주 교무의 글에서)

<리플렛 5재> 나고 죽는 것은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에 변함없는 상도(常道)니라.” (인과품 1장)

우주의 진리는 돌고 돈다. 즉 변화한다. 가는 자가 온다.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 오기도 하지만 지은 바에 따라서 여섯 가지 옷[천도·인도·수라·축생·아귀·지옥] 중에 한 가지 옷을 입고 온다. 그 중에 축생의 옷을 입고 오기도 한다. 그 축생 중에 강아지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강아지로 환생한 할머니

이 일은 제 이모님 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이모님의 시어머니 댁은 충남 강경으로 시아버님과 같이 시골에서 살고 계셨다. 그런데 이 두 노부부는 가끔 서울의 아드님 댁(서대문구 충정로)에 오시어 계시곤 하셨다.

하루는 이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셔서 아드님 댁에 머물고 있다가 서대문구 역촌동에 사는 따님 댁을 다니러 가셔서 침대에서 그만 주무시다 떨어지셔서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 돌아가신 할머니는 평소 역촌동에 사는 따님에게 매우 애착이 많으셨고 손주들도 할

머리를 무척 따라서 아주 관계가 좋으셨다. 할머니의 성품은 평소 온화하시고 대범하셔서, 사돈인 저와도 가깝게 지내시고 남들과도 무관하게 지내시는 소탈한 성격이셨다.

할머니 사위는 종교가 없었고, 따님은 기독교, 손주들은 천주교 신자였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당시 원불교 중곡교당에 다니시던 제 이모의 주관으로 원불교식으로 장례식과 49재를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 사위와 따님은 좋던 싫던 간에 재를 지내는 동안 생사법문과 인과법문을 매 재마다 듣게 되었다. 이렇게 재를 지내고 있는 어느 날, 단독 주택에 살던 사위의 꿈에 장모님이 긴 골목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위가 “장모님, 어떻게 오십니까?”하고 물으니, 그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아니, 내가 자네 집에 오는데 못 올 데 오는가?” 하시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바로 강아지로 변하더라는 것이다. 그 강아지는 양쪽 귀가 밤색이고 등에도 밤색 점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날 그 사위가 출근하려는데 한동안 전혀 연락도 없이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해서, 퇴근길에 자기 집을 꼭 들르라며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하여튼 꼭 줄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퇴근 후 신림동 친구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집에서 불쑥 강아지 한 마리를 내밀며 가져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친구가 내밀은 강아지를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등골이 오싹한 것이다. 정말 어젯밤 꿈에서 본 장모가 변한 강아지와 똑같이 생긴 것이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강아지를 받고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딸인 자신의 부인은 강아지를 매우 싫어하고 강아지 키우는 일도 매우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나무라는 형편이고 해서 거부를 했다.

그러자, 그 동창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이걸 자네 주려고 연락처를 얼마나 수소문 했는지 아는가!” 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그 사위는 친구가 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아지의 체온이 느껴지면서 강아지가 곰실곰실 하는 게 영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설마 이 강아지가...”하며 반신반의를 했다. 집에 돌아와 강아지를 내려놓으니 그 강아지가 할머니의 따님을 빼꼬미 쳐다보더니 꼬리를 치며 빙빙 돌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개를 싫어하던 그 따님도 “어디서 이렇게 이쁜 강아지를 데리고 왔냐?”며 강아지를 번쩍 들고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더라.

그 날 이후, 강아지와 할머니의 따님은 한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하고, 강아지가 설사를 하면 죽을 끓여서 자기 손바닥에 놓고 먹이기도 했다. 심지어 그 따님은 강아지 양치도 해주었다고 한다. 평소에 덜렁덜렁 하던 그 따님은 손수 뜨개질까지 하여 강아지 옷을 입혀주고 투표하러 갈 때도 같이 하고, 출근할 때도 같이 데리고 가며, 어디에든지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다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루는 그 사위는 꿈 이야기를 하며, 그 강아지에 얽힌 모든 사연을 그 따님에게 말을 해주었다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그 따님은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며 “동우엄마 진짜야?”라며 물었다.

그래서 저는 교무님께 이야기하고 여쭙보았더니 교무님께서는 할머니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시던 것을 그 강아지에게 줘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 따님에게 전하였고, 그 따님은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박하사탕을 강아지에게 줘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강아지는 박하사탕을 최고로 좋아하며 오도독 오도독 사탕을 씹어 먹었다고 한다. 저는 교무님께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하였다.

교무님께서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돌아가신 할머니 천도재를 다시 지내자고 하였다. 계속해서 강아지로 살면 인간세상을 잊고, 또 머리도 나빠지고... 기타 등등을 이유로 말입니다. 천도재를 지내주면 그 강아지는 본래의 명보다 빨리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아지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따님은 반신반의하며 천도재 지내주라는 이야기를 흘려버렸다. 그리고 그 따님과 그 강아지는 10년이 넘게 함께 살다가 강아지가 죽어서 결국 산에 묻어주었다고 한다.

(원티스(www.won.or.kr) > 출가교역자광장 > 자유게시판 > 박남주 교무의 글에서)

<리플렛 6재> 천도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제자 여쭙기를 “예로부터 자녀나 친척이나 동지된 사람이 자기 관계인의 영을 위하여 혹 불전에 헌공도 하고 선지식을 청하여 설법과 송경도 하게 하옵는 바,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오며 그 정성과 도력의 차등에 따라 그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을 위하여 축원을 올리고 헌공을 하는 것은 그 정성을 포함이니,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 정성의 등급을 따라 축원한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는 설법을 하여 주고 송경을 하여 주는 것도 당시 선지식의 도력에 따라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1. 혹은 과거에 지은 악업을 다 받은 후에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2. 혹은 모든 업장을 벗어나서 바로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3. 혹은 앞 길 미한 중음계에서 후생 길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찾아 가기도 하며,
4. 혹은 잠간 착에 걸려 있다가 그 착심을 놓아 버리고 천상 인간에 자유 하여 복락 수용을 하는 수도 있으나,

만일 자녀의 정성이 특별하지 못하고 선지식의 도력이 부족하다면 그 영근(靈根)에 별스러

운 효과를 주지 못하게 되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참된 위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정성과 역량을 다 들이지 아니하면 곡출이 적은 것과 서로 같나니라.” (천도품 30장)

67년만에 천도된 이야기

익산 원불교 중앙교구 도원교당에 정○○ 교도회장님이 계셨다. 원광대 교직원으로 환경 및 조경으로 오늘날 원광대학교의 환경을 이루신 분이다. 원광대학교의 조경 운치는 전국대학에서 상위권에 든다고 한다.

정회장님은 말년에 폐암에 고생을 하였다. 나와는 호형호제한 인연이라서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우연히 함열 황토방에서 만났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다. 치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황토방을 자주 온다고 한다.

그런데 대화중에 천도재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체험한 천도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회장은 6·25 사변 때에 여동생 손을 잡고 남한으로 피난을 오던 중이었다. 11세 된 여동생과 며칠을 굶고 지친 몸으로 오다가 동생이 결국 강원도 어느 길가에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공동묘지 한쪽에 묻어 주었다. 겨울이라서 마땅한 연장이 없어서 손으로 파고 손으로 묻었다. 그런데 이튿날 사람들이 웅성거리서 가보았더니 여동생 무덤을 짐승들이 파고 시체를 일부 훼손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무거운 돌과 적은 바위덩어리를 옮겨서 다시 묻고 남한으로 내려 왔다.

원불교 총부 구타원 이공주님 밑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원광대학에 조경 담당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아산님의 지도로 전국 각 지역에 유명한 조경지를 모두 방문하고 연구하면서 근무를 하고 정년을 하였다. 물론 원불교 교당과 기관에 조경에 많은 협조를 하신 분이다.

세월이 흘러서 67년이 지난 어느 날 도원교당에서 특별천도재를 올린다고 하였다. 부인과 교무님 권유로 6·25 피난시절에 죽은 동생 이름을 올렸다. 그야말로 죽은 지 67년이 지나서야 동생 이름을 올렸다. 천도재가 끝나는 날 밤 여동생이 정회장님 부인에게 나타났다.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 좋은 데로 갑니다. 오빠한테도 말씀 좀 해주셔요.”

정회장은 특별천도재를 잘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회장은 얼마 후에 열반하셨다. 그때 여동생 천도 이야기가 저한테 전해지게 되었다.

(원티스(www.won.or.kr)> 출가교역자광장> 자유게시판> 박남주 교무의 글에서)

<리플렛 종재> 생사 거래의 3가지 근기

생사 거래에 세 가지 근기의 차가 있나니,

하나는 애착 탐착에 끌려서 거래하는 근기라, 가고 오는 길에 정견을 하지 못하고 항상 전도가 되어 닥치는 대로 수생하여 취생몽사하며 또는 원한이나 증오에 끌려 악도에 타락함이요, 둘은 굳은 원력을 세우고 거래하는 근기니, 정법 회상에 철저한 신념과 발원을 가지고 평소에 수행을 하며 최후의 일념을 청정히 하면 오나가나 부처님 회상에 찾아 드는 것이 마치 자석에 쇠가 따르는 것 같이 됨이요,

셋은 마음의 능력으로써 생사를 자유하는 근기니, 이는 철저한 수행의 결과 삼대력을 원만히 얻은 불보살 성현들이 육도 거래를 임의로 하심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2장)

어느 교도님의 이야기이다.

저는 혼기를 놓치고 살아가는데도 시집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데 맞선을 보면 인물, 학력, 재력 등 부족함이 없는 남자가 나타나는데도 그렇게 싫었다. 심지어 20~30번이 넘게 연락이 왔는데도 어쩐지 싫었다.

그런데 새로 발령오신 교무님에게 마음을 붙여서 기도와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교무님이 “왜 시집을 가지 않느냐?”고 물으시길래, “10년 전에 사귀던 남자가 죽었다.”고 했다. 교무님은 특별천도재를 모셔 보자고 했다. 그래서 10년 전에 열반한 남자친구의 천도재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그런데 재를 모실 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종재를 당하여 꿈에 그 남자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고맙다. 행복하여야 해!”하고 말하였다.

그 후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렇게 싫었던 남자들이었는데... 천도재 이후에 남편을 만났고 1남 1녀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고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해본다. 생사거래에 가장 큰 장애는 애착이 아닌가 싶다.

(『죽음과 천도』에서)

공무원 조전권(1909-1976) 교무가 마령에서 교리강습을 하는데 소복을 한 젊은 여인이 와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 강의를 끝나자 그 여인이 공무원 교무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다. "나는 17세에 자살한 사람입니다. 여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다는 소문이 나서 너무 억울하여 내 속을 열어 보일 수는 없고 죽음으로 결백을 보이려고 악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자살한 죄로 10년간 몸을 주지 않아서 허공 중천을 떠돌아다녀야 하였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니 그때 조금만 참았었다면 해결될 일을 너무 경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뉘우쳤습니다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라 어쩔 수가 없고 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복도 짓고 하니깐 3년을 줄여서 7년 후에는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무는 그 여인에게 물었다. "영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복을 짓습니까?"

"어린애들이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받쳐주기도 하고, 물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받쳐도 주고, 이런 법회가 열리면 처마 밑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서 업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그렇더라도 이 소복한 여인은 누구요?"

"이 사람은 처녀 과부인데, 이 동네 남자 하나가 병이 들어 곧 죽으려 할 때 부모들이 총각귀신 면해준다고 결혼시킨 지 일주일만에 신랑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만 했지 처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공 중천에서 둘러보다가 이 여자가 하도 안 되어서 도와주려고 이 여자한테 왔습니다."

이 말을 끝낸 영가는 한 마디 하기를 잊지 않았다. "앞으로 공무원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7년 후에 태어나서 형님께 잘하거든 나인 줄 아시오."

공무원 교무는 이 사실을 대종사님께 보고했다. 이에 대종사님은 맞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대중 앞에 발표하라 하시어 두 차례 발표한 일이 있었다.

(원티스(www.won.or.kr)> 출가교역자광장> 자유게시판> 박남주 교무의 글에서)

IV. 열반기념제를 위한 리플렛

이 장에서는 비교도 가족에게 열반기념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리플렛을 만든 것이다. 여기의 내용은 『예전』을 참고하였다.

<리플렛> 열반기념제란 무엇인가??

물이 근원이 있어야 큰 바다와 긴 강[대해장강]을 이루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무성한 것과 같이 가정이나 국가나 회상도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조상을 추모하며 보은하는[추원보본]의 정성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울안 한이치에』 제4장 7절에서)

제사는 열반인에 대하여 추모의 정성을 바치는 것인바,
 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나니,
 하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불전에 발원하여 속세의 업장을 녹이고,
 도문에 인연을 깊게 하며 헌공금으로 공도 사업에 활용하여
 그 미래의 명복을 증진하고 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요,
 둘은 열반인이 재세 당시에 끼친바 공덕을 추모하며 자손 대대에 그 근본을 찾게 하여
 후생의 보본 사상을 권장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가 다 이체에 당연하여 하나가 결함되어도 완전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제사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 양방에 유의하여 각각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니라.

열반기념제는 기존의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님이나 스승님 그리고 웃어른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조부모 이상의 선조는 적당한 날을 택하거나 교단적으로 향례를 올릴 때(육일대재, 명절대재) 합동으로 하면 대중의 공동 추모와 많은 선 지식의 합동 축원을 받게 되어 조상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제사라고 하면 제사 음식 장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각가지 음식을 챙겨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제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제사 음식을 해주는 곳에 맡겨서 지내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서는 형식과 허례에 빠져있는 예법이 너무 번거로워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심하여 사회발전에도 많은 장애가 됨을 아시고, 예법을 개혁하여 신정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예법에서 지내는 제사에서는 조상을 추모하는 기본 정신은 강조하면서, 음식을 놓지 않고 향초와 꽃으로 대신하며, 그 절약된 금액으로는 공익사업에 쓰게 하여 조상에게도 도움이 되고, 후손에게도 도움이 되는 열반기념제를 만들었습니다.

1. 부모·사장(師長) 등의 열반일에는 열반기념제를 거행하여, 자손이나 제자로서 추모하는 정성을 바치는 동시에 열반인의 영원한 명복을 축원할 것이요.
2. 부모나 사장의 기념제는 해당 일자에 각각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부모로부터 선조의 기념제는 적당한 일자를 정하여 연중에 한 차례 합동으로 거행하도록 할 것이요.
3. 기념제의 장소는 교당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형편에 따라 자택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며, 제주는 전일부터 도량을 깨끗이 하며 심신의 재계에 유의할 것이요.
4. 교당이나 자택을 막론하고 기념제를 거행할 때에는 매양 주례의 지도에 따라 하되, 식은 <1. 개식 2. 입정 3. 약력 보고 4. 법공의 노래(성가 46장) 5. 헌공 및 기념문 6. 심고

및 일동 경례 7. 성주 3편 8. 독경(서원문·심경) 및 축원문 9. 헌공 보고 10. 열반기념가 (성가 47장) 11.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5. 법계가 정사[법위가 법강항마위] 이상된 분의 제사인 경우에는 축원문을 처지에 맞도록 가감 사용하되, 특히 "사건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부터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 까지의 부분은 생략해서 사용할 것이요.

6. 형편에 따라 축원문에 이어 설법을 행할 수 있나니라.

열반기념제를 지내는 이유³⁾

1. 열반인의 재세 당시 끼친 바 공덕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 자손대대에 그 근본인 뿌리를 찾게 하여 후손의 추원보본사상을 진작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열반인으로 하여금 속세 업장을 녹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열반인으로 하여금 도문에 인연을 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 열반인의 미래 명복을 증진하고 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열반기념제를 모시는 방법⁴⁾

1. 조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2. 추모의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합니다.
3. 검소하게 모셔야 합니다.
4. 공동으로 합동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제사에 대한 처리

1. 제주(祭主)는 참제한 분들을 위하여 간소한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의 비용을 들여서 접대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요.

2. 헌공은 제사 비용을 절약하고 그 대액을 불전에 바쳐서, 불사나 기타 공공사업에 사용하여 열반인의 명복을 빌되, 제주는 이를 성의로써 헌공할 것이요.

3. 제주는 원에 따라 단독이나 합동을 막론하고 규정에 의한 헌공 자금을 교당에 바치고, 교당에서는 매년 그 이율로써 헌공하며, 교당 주최로 기념제를 거행하도록 할 것이요.

4. 제주는 열반인의 사진과 역사를 잘 보관하며, 기념제 후에는 각 관계인이 서로 그 추모담을 교환하여 보본의 정성을 새롭게 할 것이니라.

3) 김일상 외 3명, 『천도, 죽음을 안내하는 길』, 원불교 교화연구소, 2003, 111쪽.

4) 김일상 외 3명, 『위의 책』, 111쪽.

<열반기념제의 공덕에 대한 감상문>

이리교당 양성준 교도님은 일년에 전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휴일을 선택해서 합동 열반기념일로 정하고 여러 해 모시고 있다.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70세가 넘으신 노부부가 걸레까지 챙겨가지고 와서 미리 법당 청소부터 해놓고 목욕재계하고 제사에 참석한다.

가족들도 손자녀 형제들까지 모이면 거의 40여명이 모이고, 헌공도 따로 따로 하는 가장 큰 제사다. 식을 마치면 떡과 과일을 푸짐하게 장만해가지고 와서 온 가족이 다 공양을 하고 추모담을 하고 안부를 묻는 등 화목한 분위기이다.

이 광경을 보노라면 이분들의 하는 모습이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제대로 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는 공덕이 너무나 다복하고 화목하게 보인다.

그러한 공덕인지 양성준님은 뇌출혈로 4번이나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아무런 지장 없이 활동하니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한다. 뇌출혈로 4번이나 쓰러져 병원에서 사람들이 문병하러 오셔서 "참으로 복이 많으신 어른이시다."하셨다.

선조를 잘 받들고 집안권속을 잘 거느리니, 그것이 다 복 받는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으로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의 오롯한 정성으로 모시는 제사를 보고 흐뭇하고 감동이 되었다.

V. 설(추석) 명절 향례를 위한 리플렛

이 장에서는 설(추석) 명절에 가정에서 쉽게 원불교식으로 명절 향례를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이다. 그래서 명절 향례 식순을 멘트와 함께 정리하고, 기념문 및 심고문, 축원문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예전집례집』에 바탕하여 구성되었다.

<리플렛> 설(추석) 명절 향례 식순

개식 전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웁니다.

- 좌종 10타를 한 뒤에, 사회자는 죽비 3타를 하고 대중을 향해 경례합니다.

1. 개식- 지금부터 설(추석) 명절 합동 향례를 시작합니다.

2. 입정-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읍니다.

- 죽비 1타로 입정 신호를 한 후 2~3분이 지나면 죽비 1타로 출정신호를 합니다.

3. 약력을 보고합니다.

4. 법공의 노래- 성가 46장 '청정법계 둘 아니니(법공의 노래)'를 부릅니다.
5. 제주헌공 및 기념문 봉독- 재주는 법신불전에 나오시어 헌공금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기념문을 올립니다. 기념문이 끝난 뒤에 영전에 재배합니다. 부군(부인), 자녀, 손 자녀, 형제 순으로 분향헌배합니다.
6. 설명기도 및 일동경례-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일어서서 다 함께 합장을 하고 설명기도를 올립니다. - 끝나면 사회의 죽비 1타를 따라 법신불전에 경례합니다. 그리고 일동경례를 할 때는 선 채로 죽비에 맞추어 법신불전에 두 번 절을 합니다.
7. 성주 3편- 성주 3편이 모두 끝날 때는 죽비 2타를 하면서 함께 경례합니다.
8. 독경 및 축원문- (독경은 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참회문(참회계), 금강경입니다.) 축원문을 올리기 전에는 향을 하나 피웁니다. 축원문이 끝나면 모두 함께 일어서서 큰 절로 4배를 올리고, 끝나면 자리에 앉습니다.
9. 법어봉독을 합니다.
10. 열반기념가- 성가 47장 '임 가신 뒤 세월은(열반기념가)'를 부릅니다.
11. 폐식- 이상으로 설(추석) 명절 합동 향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죽비 3타로 폐식을 알립니다.

<설(추석) 명절 향례 기념문>

원기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에 소자녀 〇〇〇 등은 삼가 두어줄 기념문을 받들어 조상님 존영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또 다시 조상님의 설(추석) 명절을 맞이하오니 세월이 지낼수록 추모하는 생각 더욱 간절하오며, 세상일을 경험할수록 망극한 은혜 더욱 느끼오나 조상님들의 모습은 뵈을 길 없사옵고 조상님들의 음성은 들을 길 없사오니, 저희 자손들의 가슴에 쌓인 이 회포를 어느 세월에 또 다시 풀어 보오리까.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조상님이시여! 지금 어느 곳에 계시오며 무슨 업을 행하시나이까. 삼천 세계의 너른 국토에 부처님 국토가 가장 높으옵고, 여러 중생들의 태어남에 사람의 몸이 제일 귀하오며, 세상의 길 가운데 마음과 도를 닦는 길이 가장 광명하오니 조상님들이시여! 지금 수도의 길을 찾으셨나이까. 수도의 길을 찾으셨으면 성불의 근원이 되는, 중생이 끝이 없으나 맹세코 제도하기를 원하며, 번뇌가 끝이 없으나 맹세코 끊기를 원하며, 법문이 한량없으나 맹세코 배우기를 원하며, 불도가 위가 없으나 맹세코 이루기를 원하는 이 사홍서원에 회향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설(추석) 명절에 조상님들을 위한 향례를 모시는 것은 조상님들의 영원한 세상에 완전한 천도를 기원함이오니, 조상님 존령이시여! 저희들의 작은 정성에 감응하시며 부처님의 은혜에 목욕 하시와, 만일 부처님의 땅에 들지 못하셨거든 이 인연으로 바로 부처님의 땅

에 드시옵고,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셨거든 이 인연으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길을 얻으시옵고, 만일 도를 닦는 길을 찾지 못하셨거든 이 인연으로 바로 수도의 길을 찾으시와, 삼세의 묵은 업장을 녹이시옵고 깨끗하고 맑은 자성을 회복하시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며 자비의 법력을 베푸시어 모든 대중을 구원하는 성자가 되시옵소서.

저희들도 불법 문하에 마음을 바쳐서 길이 수도자가 되기를 서원하오며, 조상님들과의 옛 인연도 부처님의 법연을 따라 다시 만나서 영원한 세상에 같이 즐기옵기를 기원하옵나이다.

○○○ ○○○ ○○○ 조상님 존령들이시여! 하감하시옵소서.

<설(추석) 명절 향례 심고문>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설(추석) 명절 향례를 맞이하여 ○○○ ○○○ ○○○ 영가 선조들의 영로에 한량없는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와 그들로 하여금 생사거래에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옵시며, 모든 착심과 원진을 여의고 완전한 해탈천도를 얻어서 악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인연에 돌아와서 세세생생에 길이 성불제중하는 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설(추석) 명절 향례 축원문>

원기 ○○년 ○○월 ○○일에 원불교 ○○교당 예감은 설(추석) 명절 향례를 맞이하여 ○○○ ○○○ 조상 영가들에게 감사와 다짐 그리고 완전한 해탈천도를 축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씨 가문의 조상 영가들은 열반에 든 지 이미 오래 되어나 인연과보는 길이 쉬지 아니하오며 또는 친자녀 ○○○ ○○○과 며느리 ○○○, 사위 ○○○, 손자녀 ○○○ ○○○ 외 일반가족은 설(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영원한 장래에 완전한 천도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명절 향례를 올리는 저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선조 제위의 남겨주신 업적과 가르침을 받들어 온가족이 화목하고 우애하는 가정의 풍습을 지키고 끼치신 은혜에 보은하고자 노력하였사옵고 한 가정은 한 국가의 근본임을 깨달아 온 가족이 일원의 명가를 이루는 참된 신앙인, 철든 수행인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설(추석) 명절 향례의 공덕으로 선조 제위 영가들께서 세세생생에 성불제중의 큰 서원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에서 계획한 각종 크고 작은 일들을 원만히 치르도록 살피 주시고, 가정에 미칠 재앙과 마장을 미리 방지하여 주시오며, 가족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사

회와 교당을 위해 헌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주시옵기를 일심으로 봉축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Ⅵ. 나오는 말

사람의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겪게 된다. 그 중에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가지는 상실감은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가장 큰 슬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천도재와 열반기념제 그리고 설(추석) 명절 향례라고 본다. 이 세 가지 의식은 가족을 한 데로 모음과 동시에 원불교 2세기 교화정책에서 가족교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버리가 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천도재를 위한 리플렛, 열반기념제를 위한 리플렛, 설(추석) 명절 향례를 위한 리플렛을 구성해보았다. 리플렛의 내용은 천도와 열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예화를 수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론적인 내용은 반복적 사용이 가능하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예화를 통한 설명은 구체적이어서 이해가 쉽기는 하나 똑같은 이야기를 사용하는 반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리플렛은 신입교도와 비교도를 위한 것이기에 되도록 쉽게 접근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원불교 2세기의 교화성장과 발전이 가족교화라는 울타리에서 의식에서부터 잘 이뤄지기를 기원해 본다.

참고자료

- 김일상, 『살아도 그 영혼 죽어도 그 영혼』, 원불교 분당교당, 1996
 _____ 외 3명, 『천도, 죽음을 안내하는 길』, 원불교 교화연구소, 2003
 박정훈, 『한울안 한이치에』, 원불교출판사, 1982
 원불교교정원 교화부, 『새 회상 만난 기쁨 : 신입교도 훈련교재』, 원불교교정원 교화부, 1994
 원불교교화부, 『예전집례집』, 원광사, 2000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편, 『원불교 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2013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0
 월간원광사, 『죽음과 천도』, 월간원광사, 2001
 한성심, 『마음공부를 통한 예식』, 원불교출판사, 2001

원불교(www.won.or.kr)> 원불교소개> 원불교 가정의례

원불교(www.won.or.kr)> 출가교역자광장> 원불교교화정보센터

원불교(www.won.or.kr)> 출가교역자광장> 자유게시판> 박남주 교무의 글

발표 4

고령화 사회와 노인 교화

정천경 교무

▷ 원불교 임피교당/ 보은의 집

고령화 사회와 노인 교화

정천경 교무

I. 서론

II. 고령화사회란?

1. 고령화사회의 정의
2. 고령화사회가 미치는 영향

III. 노인교화의 중요성

1. 노인의 정의와 특성
2. 노인의 문제
3. 노인교화의 중요성

IV. 고령화사회에서 노인교화의 방향과 활성화 방안

1. 노인교화의 방향
2. 노인교화 활성화 방안

V. 결론

I. 서론

“늙어가는 사회, 더 늙어가는 교회”

부산 카톨릭대학에서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늙음’을 사회적, 신학적, 생명윤리적으로 성찰하고, ‘고령화 사회’의 사목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내세운 주제이다. 고령화에 따른 종교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웃 종단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늙어가는 사회, 더 늙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우리 교단에서도 표현한다면 “늙어가는 사회, 더 늙어가는 교당, 더 더 늙어가는 교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정말 고령화로 인해 교단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시골교당이 많은 우리 교단은

이미 시골교당에서 젊은이는 찾아볼 수 없다. 다 노인들만 법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출가교역자를 지망하는 학생은 이미 한 두 자리수에 머물러 있어 교단의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고, 퇴임을 준비하는 출가교역자는 갈수록 늘어나 앞으로 퇴임자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교단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늦게나마 고령화와 노인교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껍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다행스러움을 느끼면서 고령화사회는 무엇인가? 그 정의와 고령화사회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노인교화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노인교화의 중요성에서는 우선 노인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열거한 뒤 우리 교단에서 노인을 보는 시각과 함께 노인교화의 정의, 그리고 노인교화가 왜 중요한지를 법문에 근거해서 정리해보았다. 그런 뒤에 고령화시대에 노인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필자가 교당에 전적으로 몸을 담고 있지 않고 복지시설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쓴다는 점과 더불어 현재 우리 교단에 몸담고 있는 교도들의 연령별 분포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전수조사가 없고 노인교화에 대한 글들도 몇 편 되지 않는다는 점과 또한, 현재 우리 교단에서 노인교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들이 한계로 노정되어 있음을 미리 밝힌다.

II. 고령화 사회란?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일반적으로 노인이 전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를 말한다.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총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총인구의 14%이상 20%일 때는 '고령사회(aged society)'라 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총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의 고령화를 지나서 이제 14%의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수는 2010년 536만 명에 비해 2.2%(121만명) 증가한 675만 명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총인구 5107만 명의 13.2%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지난해 13.2%이니까, 2017년부터는 두 배인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이런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데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데 9년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공공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관련 서비스의 증가,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반대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1906년 23.5세, 1916년 27.1세, 1926년 33.6세, 1936년 42.6세, 1970년대 61.9세, 2000년에는 76세, 작년인 2015년에는 78.2세에 이르렀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40년에는 86.0세로 장수국가인 일본과 이탈리아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고령화사회가 미치는 영향

인구의 고령화는 장수라고 하는 인간의 소망이 실현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인류 최대의 축복인 동시에 한 국가의 산업구조, 재정과 금융, 주택시장, 문화, 직업환경 등 전체 사회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현상이다.

둘째는 실버산업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셋째는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집단주거시설의 확대와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역모기지론제도가 역시 활성화 되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난다.

넷째는 노동력은 감소하고 노인부양에 따른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저축률이 줄어들어 가용자금 축소, 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변화다.

다섯째는 연금, 의료 및 복지비용 등 사회보장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국가는 재정불균형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은 피폐해지고 농어민의 삶의 질은 낮아지는 지역

간의 불균형문제가 야기된다.

일곱째는 더 많은 연금 급여를 요구하는 노인과 연금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외에도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정치구조의 재편, 여가 또는 레저활동의 주도계층 변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Ⅲ. 노인교화의 중요성

1. 노인의 정의와 특성

1) 노인의 정의

노인이란 어의상(語義上)으로는 ‘나이 많은 자’로서 평범하게 사용하는 용어이면서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및 여건에 따라 개념에 차이가 있으며 학자에 따라 그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연령에 따라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60세를 회갑년으로 하는 전통이 있으나 생활보호법(1981)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1993)에서도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60세를 노인으로 보는 견해보다는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노인을 단지 나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나이를 흔히 먹어간다는 것은 생물학적 퇴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노화가 시작되는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선을 그을 수가 없다.

1951년 국제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정의를 보면 “노인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난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 적용되는 복합형태의 과정이다.”고 했다. 이것을 세분화하면 ①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②생체의 자체통합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④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되어 적응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노인이란 노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노쇠와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의존적이며, 이를 사회문화적인 ‘효’라는 개념으로 보장하고, 연장자로서 권위를 갖는 사람”(서병숙, 1991)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노인의 특성

① 신체적 특성

노인의 신체적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체력과 정력의 쇠퇴, 시력과 청력의 약화, 저항력의 감소로 인해 각종 질병에 이환되기 쉬우며, 신경감각계, 근골격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위장계, 비노생식계, 그리고 면역체계등 전반에 걸쳐서 생리적 감퇴가 초래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노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사회적인 관계까지 제한을 받게 만들며,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로 인하여 노인에게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감각기능과 신경체계의 활동속도가 떨어져 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처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높다.

② 정신적, 심리적 특성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들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억력, 학습능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창의력의 정신기능 능력이 노화에 따라 현저하게 낮아진다. 특히 성격의 특성이 변하는데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과거에 대한 회상의 증가,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성 역할에 관한 지각의 변화, 의존성의 증가,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등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③ 사회적 특성

노년기에 있어서는 기대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역할규범이 확립되어있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기 쉽다. 즉 노년기로의 역할 전이를 위한 통과의식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노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혼란과 당황속에 노년기를 맞이한다. 노년기는 사회적으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은 시기이므로 사회적 과정에서의 소외와 고립의 증가, 수입의 감소, 이에 따른 의존성 증가, 사기저하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

2. 노인의 문제

노인문제란 인간이 노령화로 생길 수 있는 생활상의 곤란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인문제의 초점은 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에 따라 증대되는 의존성을 어떻게 방지하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있다. 그리고 노인문제는 노화에 의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구조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노인부양의식 변화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노인은 연하자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고, 지혜로서 젊은이를 인도하는 지도자였으며,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자였다. 따라서, 경로효친사상이 인류의 미덕으로 중시되어 존속되어왔고, 특히 중국에서 전래한 유교의 왕도정치사상에 힘 입어 개인의 속박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효를 강요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시대를 거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어 핵가족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또한,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노인을 자식들이 직접 모시고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도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2) 핵가족화와 노인의 위치 변화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가족의 기능은 축소되거나 혹은 사회의 다른 제도로 이전되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의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원리인 평등주의로 노인의 위치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노인의 역할이 아들부부의 성생활에 불편한 존재, 경제활동에 무력한 존재, 손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되는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

3) 건강문제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것이 노화의 현상이며, 건강의 문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기능이 감퇴되고 노화가 불가피하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60세를 지나면 노쇠현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또 노인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에 비해 만성질환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퇴화현상에서 오는 저항력의 약화로 발병률(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골·관절계 질환, 당뇨, 악성종양, 호흡기 위장질환, 발기부전 및 전립선 비대증, 치매 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4) 빈곤문제

노인이 됨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진다. 특히 소득이 줄거나 취업난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실제로 살아가기 아주 어렵다.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다.

5) 고독과 소외문제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회이 중요한 인물로서 대우도 받았는데 노인이 되고보면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인생의 가치나 존재에 대한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워 고독에 빠진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고독이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들이 갖는 우울증의 형태는 자부심 저하, 실패감, 절망, 무력감 등이다. 이러한 우울증이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노인의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죽음문제

노인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임종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죽음이 노년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죽음과 관련된 경험들이 많다는 점에서, 혹은 죽음을 실제로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꺼려한다. 노인들은 어서 죽고 싶다고 하면서도 막상 죽음에 임박 하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7) 노인 학대와 독거노인문제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노인에 대한 학대이다.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들은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는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효라는 정신이 퇴색해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폭력과 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학대의 시작인 인간인 생명과 존엄, 즉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독거노인은 넓게는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에 또는 가족이 없이 실제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말하고 좁게는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1인 독신가구를 말한다.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요 원인은 핵가족화의 영향이다.

3. 노인교화의 중요성

1) 노인교화란?

우리 교단에서 교화란 “일원상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교화지침서). 그러면 노인교화란 무엇인가? 교화의 대상을 노인이라는 특정계

층에 두고 그 노인들로 하여금 일원상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 실천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노인교화는 지역이나 공간에 국한을 두지 않고 오직 노인만을 교화대상으로 보고 이뤄지는 총제적인 교화활동이다. 기독교에서는 노인목회란 노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과 영혼구원사업에 인간 또는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2) 원불교에서 보는 노인

원불교에서 노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참고로 기독교에서 노인을 1)영광스런 존재, 2) 존경의 대상, 3)지혜의 상징, 4)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보고 있다.(2006. 유형준) 그럼 우리 교단에서는 노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첫째, 자력이 없는 보호의 대상이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정전 사요의 자력양성의 강령에서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흔(老昏)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이가 되든지 하면이어나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고 하였고, 정산 송규 종사도 세전 노소의 도에서 “둘째는 자력 없는 노인들에게 동정과 위안을 잊지 말며 힘 미치는 대로 보호하고 봉양하여 드릴 것이니라.”고 하여 노인을 자력 없는 사람 가운데 노흔한 늙은이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힘 미치는대로 보호하여 주고 봉양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불교에서 노인은 힘 미치는대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며 봉양을 해드리는 자력 없는 보호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둘째, 경험이 많고 생각이 깊으며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고 존경해야 할 어른이다.

정산 송규 종사는 세전 노소의 도에서 “옛 말씀에 내 집안 어른을 받드는 마음으로 남의 어른을 받들고 내 집안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하였나니,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함은 그 사회의 아름다운 풍속이 될 것이니라. 젊은이가 어른을 대할 때에 또한 도가 있나니, 첫째는 어른들의 많은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해 드리며,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 것이요,”라고 하시어 노인을 경험이 많고 생각이 깊은 분으로 보았으며,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고 존경해야 할 어른으로 보신 것이다.

셋째, 우리 회상에 꼭 있어야 할 분이다.

대산 김대거 종사는 법문3집 공도편 16장에서 “큰 회상에는 노인도 있고, 또는 일 없는 사람 같은 분도 있어서 두루두루 빠짐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다. 노끈 하나 종이 한 장이라도 노인들이 계시면 버리지 않고 다 모았다가 긴요히 쓰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것이

다.”고 밝히시어 우리 교단에 노인은 꼭 있어야 할 분으로 보시고 그런 노인들이 계셔야 사소한 것이라도 아낀다고 보셨다.

넷째, 본격적으로 생사대사를 연마하고 준비하는 분으로 보았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대종경 서품 18장에서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 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하에는 다시 수양 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 생활에 결합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라고 하였고, 대산 김대거 종사도 법문1집에서 “노년기에는 일생을 청산하는 수양기로 하여 전에 지은 모든 생각을 놓아 버리고 새소리 물소리를 벗 삼아서 이 무상 도리와 생사 대사를 연마도 하고 춘추의 불한(不寒) 불열기(不熱期)를 따라서 경치 좋은 강산이며 각 교당을 순방도 하면서 좋은 법문도 듣고 내가 하여 줄 말이 있으면 하여 주기도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 때에 급하지 않고 한가롭게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고 하여 노인을 일생을 청산하는 수양기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서 생사대사를 연마하고 준비하는 분으로 보았다.

3) 노인교화의 중요성

노인교화가 왜 중요한가? 그 중요성은 따로 논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교화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인교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법문에 근거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정전 교의편 사은장 보모보은의 조목 3조에서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涅槃)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라고 했다. 여기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란 자력이 없는 부모로서 주로 자력이 없는 부모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나약하고 쇠약한 부모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무자력한 부모들이 대체로 노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고 교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무자력한 노인에 대해 우리 교단에서는 보은을 통해 신앙까지 하도록 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교화를 해야만 한다. 무자력한 노인에게 보은하는 것이 바로 노인교화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흔한 늙은이가 자력을 양성하도록 하는데서 노인교화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정전 자력양성의 강령에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흔(老昏)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이가 되든지 하면이어나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자력 없는 사람 가운데 노흔한 늙은이를 포함해서 자력을 갖추고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인교화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약자를 강자로 진화하도록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정전 강자약자진화상의 요법은 강자가 약자에게 자리이타법을 베풀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강자로 진화하게 하는 법이다. 자리이타법을 베풀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진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화다. 따라서 약자인 노인을 자리이타법을 베풀어서 보호하고 더욱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교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인교화는 중요하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전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에서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도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해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넷째는 노인으로 하여금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를 밟아가도록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정산종사는 세전 휴양의 도에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 대사를 연마하게 한다 하시었나니, 사람이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것이요, 장년기에는 주로 사업에 종사하여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요, 노년기에는 주로 수양에 전일하여 영원한 세상에 정신의 종자를 충실히 길러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젊어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도 적당한 시기를 따라 휴양을 취함이 필요하거니와 만년에 있어서는 더욱 전문적인 휴양이 긴요한 것이며 휴양하는 도와 해탈하는 도를 잘 밟아 나아가야 영원한 세상의 영육 생활에 결함이 없나니라.”고 하여 노년기에는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서 애착과 탐착을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에 있는 노인으로 하여금 한적한 곳에서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를 밟아 애착과 탐착을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게 하려면 노인교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현실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산 김대거 종사는 법문3집 공도편 16장에서 “큰 회상에는 노인도 있고, 또는 일 없는 사람 같은 분도 있어서 두루두루 빠짐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다.”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 회상을 잘 운영하려면 노인도 꼭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노인도 꼭 있어야 하려면 노인교화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여섯째는 청소년 교화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노인교화가 왜 청소년 교화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삼세를 믿기에 청소년 교화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노인교화를 소홀히 해왔다는 증거다. 이에 따라 노인교화를 잘 하면 이 분들이 죽어서 다시 교단에 찾아오면 청소년 교화는 다시 절로 살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노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정산 송규 종사는 해방 후 전재 동포 구제 사업을 하게 하시면서 “구제 사업에는 구호 사업과 제도 사업의 두 가지 뜻이 있나니, 전재 동포에게는 우선 구호 사업이 시급하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제도 사업을 아울러 하여야 하나니라.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으리요, 오직 심지를 바르게 제도하여야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오나니, 이 세상 모든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종교 사업이며, 우리는 항상 구호 사업과 제도 사업의 양면을 쌍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고 법어 무본편 14장에서 밝혔다. 이에 우리들은 노인을 먼저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호를 하고 교당에서는 교화를 통해서 구제를 해야 한다.

IV.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화의 방향과 활성화 방안

1. 노인교화의 방향

노인교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려면 먼저 그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방향이 잘 못되면 방안도 엉뚱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교화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응답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엘버트 뎀목(Albert Dimmock)은 노인의 욕구를 여섯 가지로 열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 옷, 건강을 위한 돌봄, 거처, 안정, 개인적 접촉 그리고 제한된 범주에서의 가

사일 봉사과 같은 생존과 안정을 위한 대처욕구(Coping needs)다.

② 취미, 창조적인 수공예나. 또 다른 배움의 모험을 통해 성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하는 표현의 욕구(Expressing needs)이다.

③ 애정, 소속감, 다른 그룹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기회, 그리고 자신이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가능성을 느끼는 친교의 욕구(Fellow-shiping needs)이다.

④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기여의 욕구(Contributing needs)이다.

⑤ 삶의 회상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되며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무엇을 생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온 삶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며 깨닫는 나눔의 욕구(Sharing needs)이다.

⑥ 자기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절대자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 초월의 욕구(Self-transcending needs)로 개인적 욕구나 욕망의 만족을 벗어나 지구 전체 공동체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의 요구, 그리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돌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이다.(유형준. 2006)

이러한 욕구가 잘 채워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화방안이 나와서 실천할 때 그 가운데 노인교화는 절반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위와 같은 욕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헛수고이며 교단적인 손실이다. 따라서, 교단에서 노인교화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노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찾아서 다니는가를 미리 파악하고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실지 현장에서 진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라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셋째는 고령화시대에 나타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앞에서 고령화시대에 나타난 문제는 크게 ①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노인부양의식 변화 ② 핵가족화와 노인의 위치 변화 ③ 건강문제 ④ 빈곤문제 ⑤ 고독과 소외문제 ⑥ 죽음문제 ⑦ 노인학대와 독거노인문제 등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인교화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한 명의 노인이라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원불교 노인교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원불교 교도를 만들어서 구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송규 정산종사는 구제사업에는 구호사업과 제도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구호사업을 넘어서 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교화를 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명의

노인이라도 구호하고 제도하는 방향으로 노인교화를 해야 한다.

다섯째는 생사대사를 연마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나이가 사십이 넘으면 죽음보따리를 준비하라.”고 하였고, 또한 “노년기에는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 대사를 연마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노인교화 방향도 노인들이 세상의 모든 애착과 탐착을 여의고 생사대사를 준비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하고, 해탈의 도와 휴양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그 노인복지정책에 협력하며 더욱 더 질적으로 향상된 노인복지사업이 되도록 늘 정책 건의를 하고 이를 노인교화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

일곱째는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은 무형의 자산이다. 그들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므로 새로운 문화계승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전통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신앙적 자세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것은 노인의 역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여덟째는 교당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부속품 15장에서 “우리의 사업 목표는 교화·교육·자선의 세 가지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법문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법문이 되려면 각 교당에서도 필히 자선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한다. 그것도 노인복지사업이다. 이 노인복지사업을 각 교당에서는 형편에 맞게 최대한 활용해서 노인교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2. 노인교화 활성화 방안

노인교화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교화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지침을 정리하자.

무슨 일을 하려면 개념정리와 더불어 지침이 중요하다.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교화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교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개념도 역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인교화를 하려면 먼저 노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그에 따른 지침서가 정리되어 각 교구나 교당에서 따르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이웃 종교인 천주교의 노인사목지침과 노인사목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목지침서 226조(노인)에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1항 노년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허약해지는 시기이므로 교구는 물론 수도회와 복지단체 등은 노인건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특히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의안 제10절 3항 참조)

2항 사목자들은 노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미사와 전례, 노인학교, 경로잔치, 피정, 성서모임, 연령회 등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의안 57-61항 참조)

3항 교구와 관련단체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휴식문화 예술에의 참여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사목지침서)고 나와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목지침서에 바탕하여 천주교가 노인을 위한 사목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했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다.

1) 노인 인식을 높이기: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노인들의 조건에 맞는 활동은 공동체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교회공동체와 시민공동체는 노인들의 현상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후퇴하려는 자세를 극복하도록 돕기: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노인들의 적극적인참여와 연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후퇴하려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3) 공동체에 섞이도록 배려하기: 노인들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교회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느님의 은총 말씀의 설교 기도의 위안 사랑의 증거를 얻지 못하는 노인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공동체 안에 노인들에 대한 봉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활은 노인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고 노인들의 능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구 안에 노인사목을 위한 부서가 마련되어야 하고 본당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활동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5) 교회의 성사생활에 참여시키기: 노인들이 성·찬례 거행과 고해성사 순례 피정 영성훈련과 같은 성사 및 신앙생활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육체적 장애나 불편한 건축구조로 인한 문제는 교회가 특별히 배려해 주어야 할 부분이다.

6) 영적인 보살핌: 노인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노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보살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7) 병자와 임종을 맞는 이들에 대한 성사: 노인들에게 병자 도유성사의 집전과 노자성체는 특별히 장려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리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의 공동체 미사에서 병자 도유성사를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8) 말기 병자를 위로하기: 죽어가는 이들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도움과 인간적인 위로조차 베풀지 않는 경향에 대해 교회는 맞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병원의 원목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과제이다.

9) 다른 종교를 가진 노인들을 돌보기: 다른 종교를 가진 노인들에게도 사랑과 대화로써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노인일지라도 형제애와 연대의 정신을 통해 그리스도신앙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10) 사회와 가정 안에서 올바른 위치를 찾아주기: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 안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할 권리와 존경 받는 위치에 있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부터 노인들을 애정으로 감싸줄 의무가 있다.

11) 공공 또는 사립 주거시설에 사는 노인들을 돌보기: 친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돌보는 교회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설에서 지내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문화활동 종교적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그들이 성찬례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2) 세대간의 연대: 교회 공동체의 젊은 구성원들이 노인 구성원들과도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교회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세대간의 연대는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교정원 교화부에 노인교화 담당직원을 두어 노인교화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며 그 정책이 나날이 실현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현황파악이다. 따라서 노인교화도 본격적으로 하려면 각교당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교화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서 그 현황파악에 따라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수립도 교단적 합의가 중요하다. 교단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책이 수립되면 구두선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단에서는 교화부에 노인복지학을 전공했거나 또는 노인교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직원을 두어서 노인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고 노인교화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여 발표하고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추진해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당의 모든 편의시설이 노인을 비롯한 약자들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들이 교당에 들어서면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 문턱 등이 오고가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많은 계단이나 적은 활자의 예회보, 희미한 조명, 냉온방 시설의 미비 등은 노인들에게 많은 지장을 줌으로 큰 글씨의 주보, 밝은 조명, 마이크 시설, 냉 온방 시설 등을 마련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수단 제공, 동행봉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인들이 언제든지 교당을 드나들고 숙식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교당구조를 보면 교역자 한 명이 교당에 교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역자가 외출시에는 문을 닫고 다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교화구조를 개선하여 교역자 한 명의 근무는 지양을 하고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언제든지 교당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교당문을 열어놓아야 하고 또한, 교당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함께 생활하며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교당이 노인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교화연구소에서 분기별로 노인교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교화연구소에서는 교화부 노인교화 담당직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노인교화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그 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더불어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노인교화연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는 교당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구체적인 길을 안내하고 제시해주며, 노인복지사업을 통해 노인교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

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리고 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다.

아울러 노인재가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과 주·야간보호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단기보호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일곱째는 교당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교화활동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당에 다니는 노인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각종 동아리활동(여행, 문화답사, 사진, 수양, 사경, 봉사 등) 결성을 적극 권장하고 그 활동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교화를 해야 한다.

여덟째는 교당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하며 모든 교당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참고로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에서는 교회 안의 프로그램과 교회 밖의 프로그램으로 노인목회를 나누었는데 이는 장소에 따라 나누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지역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에 선입견을 가지고 이용하고 싶어도 종교적인 이유로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회 밖의 프로그램은 종교성을 배제한 프로그램, 교회 안의 프로그램은 종교성을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고 한다(강영실, 2001, 329).

-. 교회 안 프로그램

- 1) 생계지원사업: 불우노인 결연과 후원금지급, 공동급식서비스, 교회노인능력은행, 급식 배달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 2) 의료보호사업: 건강진단서비스와 물리치료서비스, 병원이송서비스,
- 3) 주거보호사업: 주택수리서비스(수도, 전기, 난방, 지붕, 도배),
- 4) 교육보호사업: 노인신앙교육, 노인대학, 노인건강학교, 노인전도학교, 노인기도학교, 무료법률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 5) 예방사업: 상담서비스, 심부름대행서비스
- 6) 기타서비스: 전화방문서비스, 우호방문서비스, 가사봉사서비스, 장례서비스

-. 교회 밖의 프로그램

- 1) 각종보호사업: 주간보호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2) 결연 및 위로사업: 경로잔치, 양부모자녀 결연사업,
- 3) 여가활동사업: 노인합창단, 노인취미교실, 노인여행, 노인솜씨겨루기 대회, 노인자원봉사활동, 게이트볼 대회
- 4) 기타사업: 노인혼인사업, 장례서비스사업, 호스피스활동

V. 결론

“저출산으로 청소년은 자꾸 줄어든다. 그나마 어린이 교화에 힘쓴다 해도 중학교 들어가면 슬슬 멀어지기 시작하여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아예 교당과 발을 끊고 지낸다. 이후로는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도 여간해선 교당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진대 청소년한테 공들이는 짝사랑 교화 절반쯤의 관심만이라도 노인을 위해 베푼다면 그 결과는 더욱 생산성 있고 투자가치가 있을 법하지 않은가. 고독과 허무감에 가슴이 뻥

푹린 채 스산한 여생을 보내며 죽음의 그림자 아래 주눅 든 노인들, 그들은 젊은 날에 축적한 재산과 명예와 지식과 경험에다 남아도는 시간까지 있어서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된 세대'다. 저명한 종교학자 한 분은 「노년의 삶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문화는 종교」라고 했다. 노인 교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

이 글은 원불교신문 1316호(2005.12.30)에서 이경식 교도가 [장수시대의 노인교화]란 제목으로 문화칼럼에 게재한 글로써 장수시대에 투자를 해도 멀어져만 가는 청소년교화를 이제는 그만 짝사랑하고 그 절반만이라도 노인교화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면 훨씬 성과가 많이 있다는 내용으로 노인교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글이다.

비록 10년 전에 쓴 글이지만 아직도 그 내용만큼은 금과옥조다. 우리 교단에서는 깊이 새기고 지금부터라도 노인교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노인교화현황을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이경식 교도가 말했듯이 청소년교화에 대한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투자하고 지원하는 교단이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1. 엄현목, 『고령화 시대의 문제인식에 근거한 한국교회의 총체적 성장을 위한 노인목회와 선교방안』,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과 선교목회 전공 2014년 석사학위논문, 2015.05.29.
2. 강명원, 『고령화도니 교회에서 노인목회를 통한 교회성장방안(인광교회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과 선교목회 2008년 석사학위논문, 2008.11.
3. 민장배·송진영, 『고령사회에 따른 교회의 노인복지선교에 따른 연구』, 2016.
4. 유형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목회의 필요성과 해결방안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12.30.
5. 이정훈,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 전공 학위논문, 2008.12.
6. 권호섭,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카톨릭교회의 사목적 방안연구-대구대교구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08.
7. 정연광, 『고령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노인목회』, 목원대신학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11.29.
8. 이성복, 『노인대학을 통한 실천적 노인목회-삼양제일교회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석사학위논문, 2016.02.

9. 정택근, 『노인목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신학과 목회신학 석사학위논문, 2005. 12.
10. 김병오, 『노인복지시설과 선교방안 연구-대전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12.
11. 이국환, 『노인사목을 위한 카톨릭교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를 중심으로-』, 광주카톨릭대학교대학원 실천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12. 고승철, 『노인을 위한 농촌교회의 역할 연구』, 관동대학교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13. 김영구, 『한국 고령사회 속에서의 노인복지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전략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07.18.
13. 오경원, 『원불교 노인교도의 종교활동 및 여가생활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10.
14. 교화연구소, 『교화지침서』, 이리: 교화부, 원기 73년.
15.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77.
16. 원불교출판사, 『대산종사법문 제3집』
17. 원불교신문 1316호 2005년 12월 30일자
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20%EC%82%AC%EC%97%85%EB%B2%95#undefined>)
19.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9/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60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20.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37>)

■ 메 모 ■

■ 메 모 ■